

2021년 인천광역시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글자에  
담은  
희망의  
여정

2021년 인천광역시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글자에  
담은  
희망의  
여정

# 시 화



# 만학도의 꿈

박상희 (68) / 학력인정남인천고등학교



특별상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상

열네살 소녀

중학교 문턱을 남몰래 기웃거렸다

그 학교 높은 별이되어

가슴에서 노래한 세월

보물찾기 오십여 년 이제야 찾은 입학통지서

가슴에 숨긴 아픈 상처

알알의 이슬같은 눈물 꽃 가슴에 안고

100년을 품은 남인천중고등학교에서

만난 내 책상 마음에 그리던 얼굴

아는 것이 힘이라고, 얼마나 갈망하던 공부였던가

어깨를 짓누르는 초라한 학력 무거운 짐

이제야 내려놓은 고마운 우리 학교

내 나이가 어떠랴 아직도 시간은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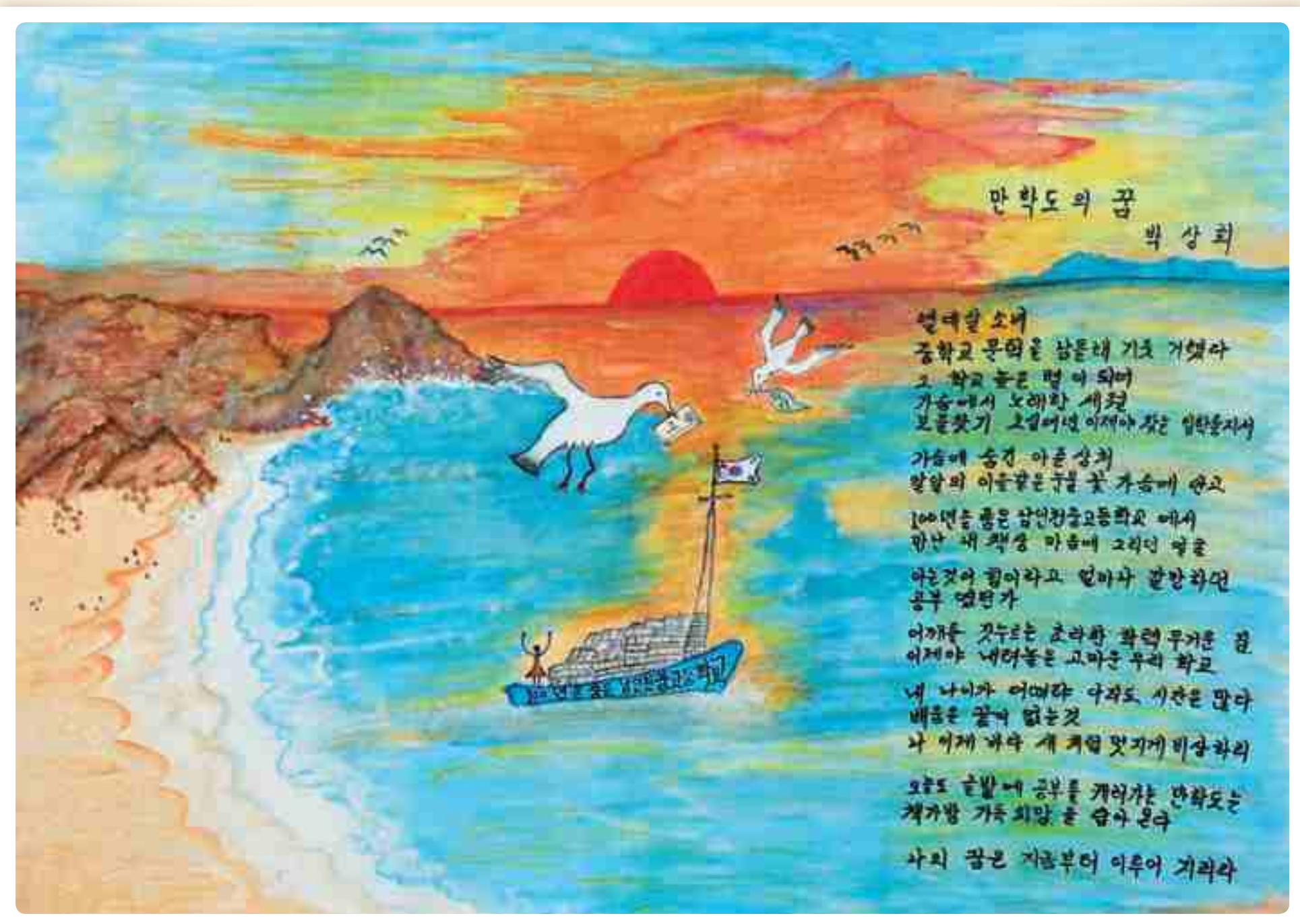
배움은 끝이 없는 것

나 이제 바다 새처럼 멋지게 비상하리

오늘도 글밭에 공부를 캐러가는 만학도는

책가방 가득 희망을 담아온다

나의 꿈은 지금부터 이루어지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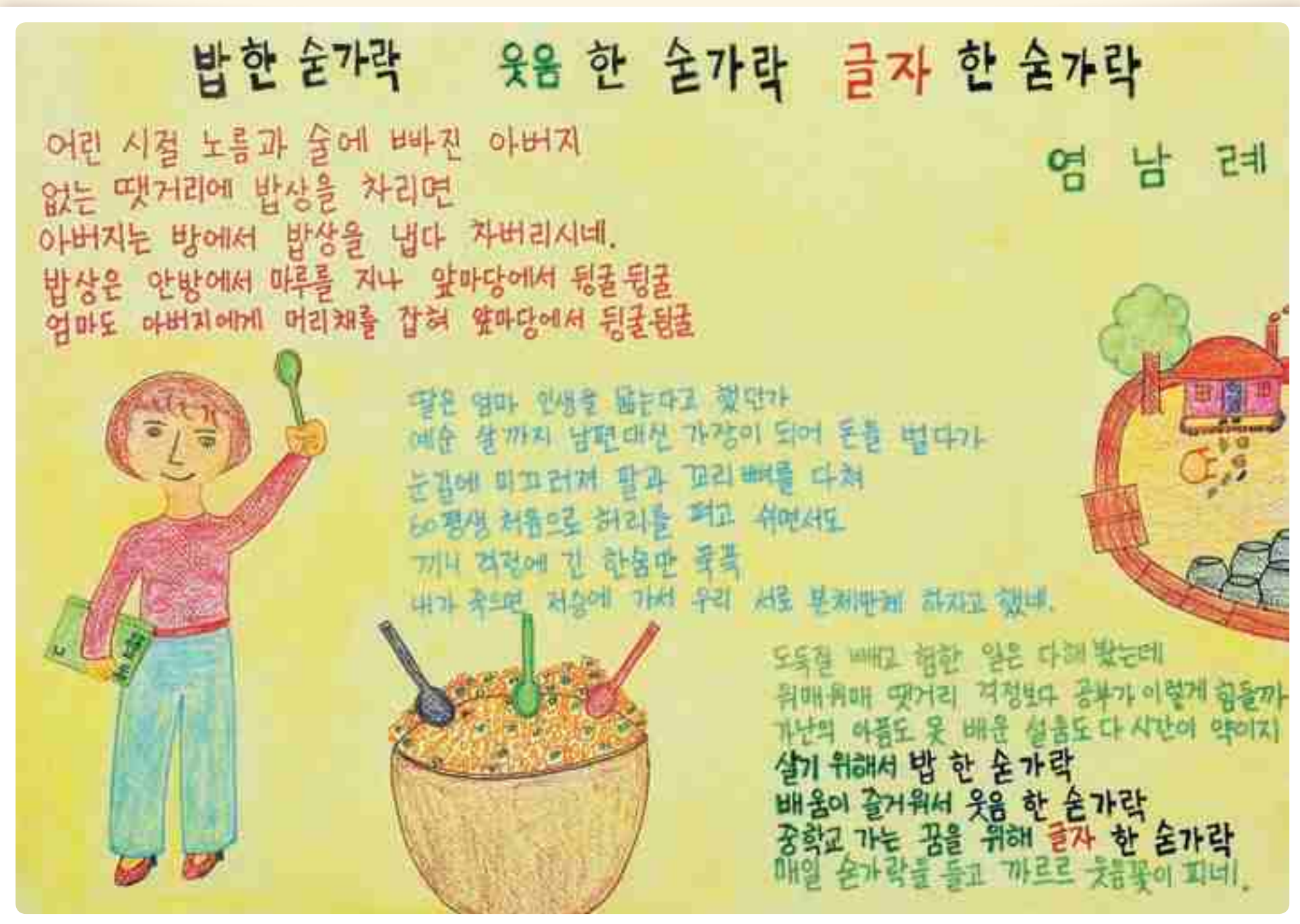


# 밥 한 숟가락 웃음 한 숟가락 글자 한 숟가락



특별상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상

염 남 례 (68) / 인천광역시교육청주안도서관



어린 시절 노름과 술에 빠진 아버지  
없는 땃거리에 밥상을 차리면  
아버지는 방에서 밥상을 냅다 차버리시네  
밥상은 안방에서 마루를 지나 앞마당에서 뒹굴뒹굴  
엄마도 아버지에게 머리채를 잡혀 앞마당에서 뒹굴뒹굴

딸은 엄마 인생을 닮는다고 했단가  
예순 살까지 남편 대신 가장이 되어 돈을 벌다가  
눈길에 미끄러져 팔과 꼬리 뼈를 다쳐  
60 평생 처음으로 허리를 펴고 쉬면서도  
끼니 걱정에 긴 한숨만 폭폭  
내가 죽으면 저승에 가서 우리 서로 본체만체하자고 했네

도둑질 빼고 힘든 일은 다해 봤는데  
워매워매 땃거리 걱정보다 공부이 이렇게 힘들까  
가난의 아픔도 못 배운 설움도 다 시간이 약이지  
살기 위해서 밥 한 숟가락  
배움이 즐거워서 웃음 한 숟가락  
중학교 가는 꿈을 위해 글자 한 숟가락  
매일 숟가락을 들고 까르르 웃음꽃이 피네





우수상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상

# 배우고 보니 생산자 이었네

김복례 (68) / 인천광역시교육청연수도서관

글자에  
담은  
희망의  
여정

2021. 9.

대한민국 문해의 달

2021년 인천광역시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배우고 보니 생산자 이었네

김복례

딸만 다섯인 막내로 태어나서  
'가갸'도 모르고 머슴으로 살았지요.  
노지에서 농사지어 노점을 하는데  
도서관에서 글을 배워 눈을 뜨니  
머슴이 아니고 생산자이었음을 알았지요.

글자를 몰라 골탕도 먹었고 당할 때  
배워야겠다고 다짐을 했지요.  
용기 내어 질문도 하고  
종이만 보면 쓰고 책만 보면 읽지만  
배울수록 글쓰기가 참 어려워요.

어려운 환경을 잘 헤쳐나온  
극복한 이야기를 쓰고 싶어요.  
글쓰기란 머슴살이만큼 힘든 일이지만 .....  
속으로 생각한 것을 겉으로 나타내며  
여러 사람 속에서 자신감 있는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딸만 다섯인 막내로 태어나서  
'가갸'도 모르고 머슴으로 살았지요  
노지에서 농사지어 노점을 하는데  
도서관에서 글을 배워 눈을 뜨니  
머슴이 아니고 생산자이었음을 알았지요

글자를 몰라 골탕도 먹었고 당할 때  
배워야겠다고 다짐을 했지요  
용기내어 질문도 하고  
종이만 보면 쓰고 책만 보면 읽지만  
배울수록 글쓰기가 참 어려워요

어려운 환경을 잘 헤쳐나온  
극복한 이야기를 쓰고 싶어요  
글쓰기란 머슴살이만큼 힘든 일이지만  
속으로 생각한 것을 겉으로 나타내며  
여러 사람 속에서 자신감 있는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우수상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상

# 내 나이는 환갑 17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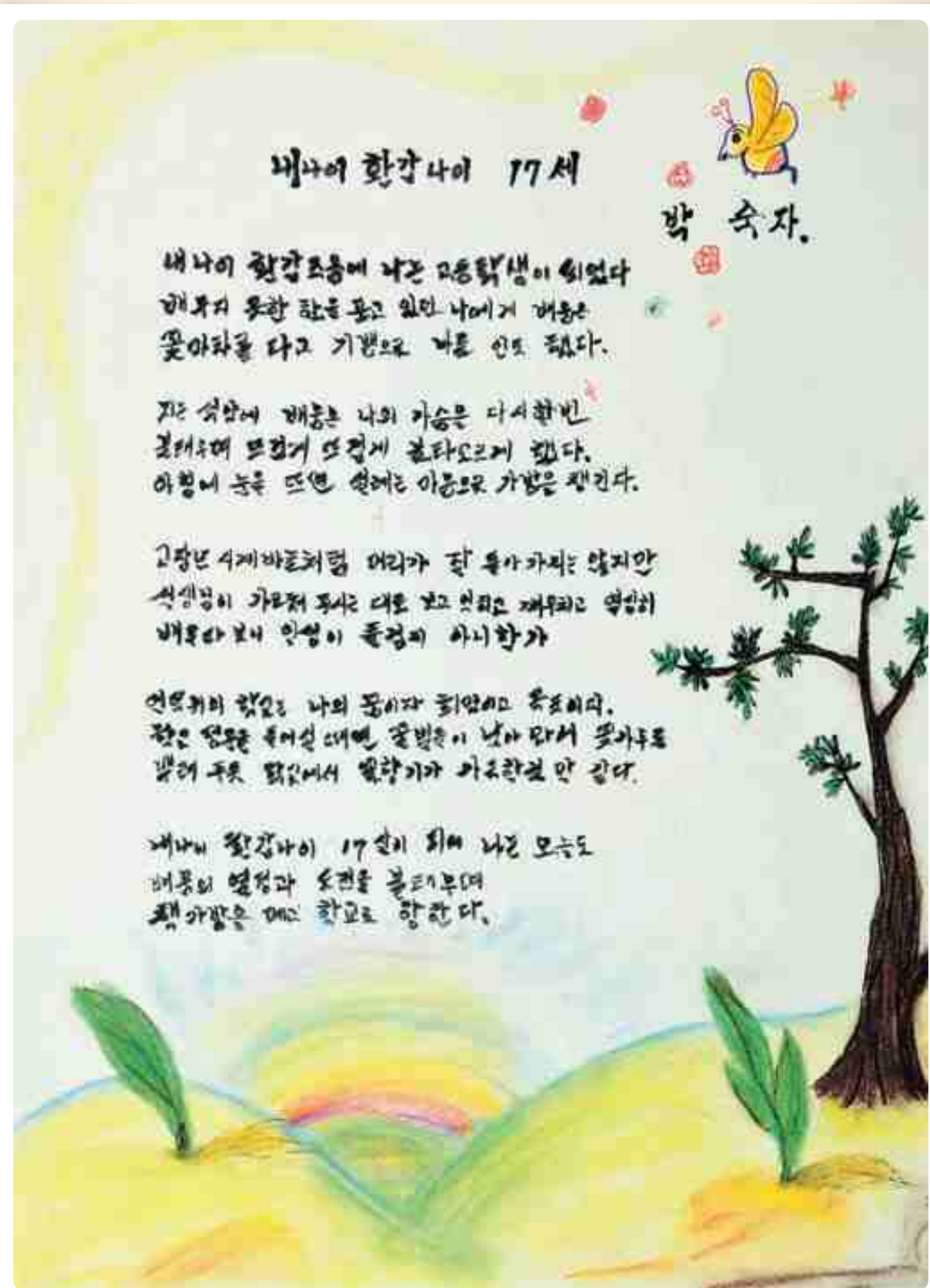
박 숙 자 (61) / 학력인정남인천고등학교

글자에  
담은  
희망의  
여정

2021. 9.

대한민국 문해의 달

2021년 인천광역시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내 나이 환갑 나이 17세

박 숙 자.

내 나이 환갑 즈음에 나는 고등학생이 되었다  
배우지 못한 한을 품고 있던 나에게 배움은  
꽃마차를 타고 기쁨으로 나를 인도했다.

지는 석양에 배움은 나의 가슴을 다시 한번  
불태우며 뜨겁게 뜨겁게 불타오르게 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설레는 마음으로 가방을 챙긴다.

고장난 시계바늘처럼 머리가 잘 돌아가지는 않지만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보고 익히고 깨우치고 열심히  
배우다보니 인생이 즐겁지 아니한가

언덕 위의 학교는 나의 꿈이자 희망이고 목표이다.  
학교 정문을 들어설때면 꿀벌들이 날아와서 꽃가루를  
뿌려 주듯 학교에서 꽃향기가 가득할 것만 같다.

내 나이 환갑 나이 17살이 되어 나는 오늘도  
배움의 열정과 도전을 불태우며  
책가방을 메고 학교로 향한다.

내 나이 환갑 즈음에 나는 고등학생이 되었다  
배우지 못한 한을 품고 있던 나에게 배움은  
꽃마차를 타고 기쁨으로 나를 인도했다

지는 석양에 배움은 나의 가슴을 다시 한번  
불태우며 뜨겁게 뜨겁게 불타오르게 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설레는 마음으로 가방을 챙긴다

고장난 시계바늘처럼 머리가 잘 돌아가지는 않지만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보고 익히고 깨우치고 열심히  
배우다보니 인생이 즐겁지 아니한가

언덕 위의 학교는 나의 꿈이자 희망이고 목표이다  
학교 정문을 들어설때면 꿀벌들이 날아와서 꽃가루를  
뿌려주듯 학교에서 꽃향기가 가득할 것만 같다

내 나이 환갑 나이 17살이 되어 나는 오늘도  
배움의 열정과 도전을 불태우며  
책가방을 메고 학교로 향한다



# 밍크 코트 공장

박막임 (79) / 인천광역시교육청평생학습관

2021. 9.

대한민국 문해의 달

2021년 인천광역시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30년 동안 밍크옷 만드는 공장에 다녔다

불량 딱지 붙어서 나올 때마다

읽을 수 없어 눈치껏 하다가도

괜히 죄지은 사람처럼

슬쩍슬쩍 옆사람에 물으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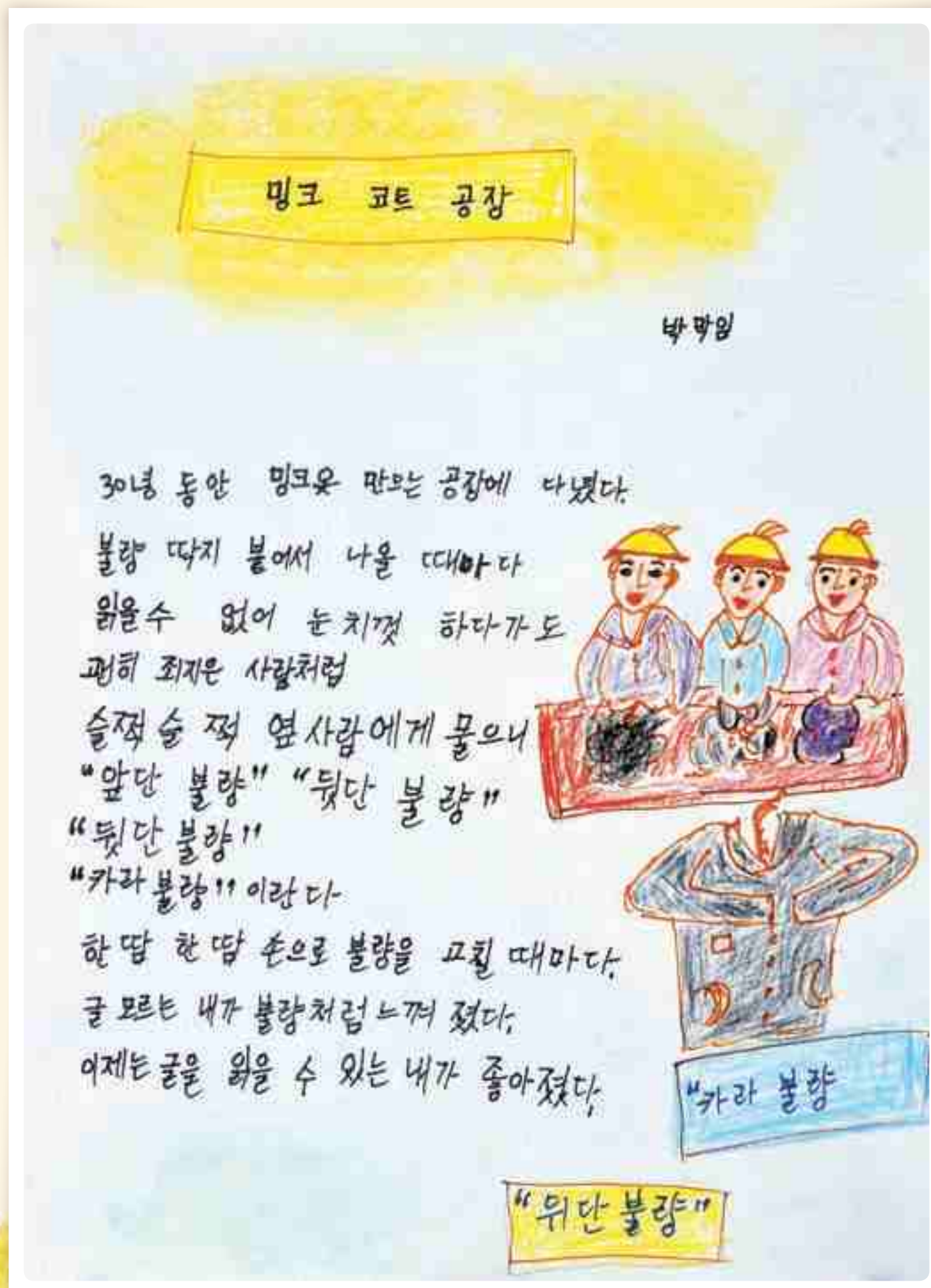
“앞단 불량” “뒷단 불량”

“뒷단 불량” “카라 불량” 이란다

한 땀 한 땀 손으로 불량을 고칠 때마다

글 모르는 내가 불량처럼 느껴졌다

이제는 글을 읽을 수 있는 내가 좋아졌다







최우수상 인천광역시의회의장상

# 너 때문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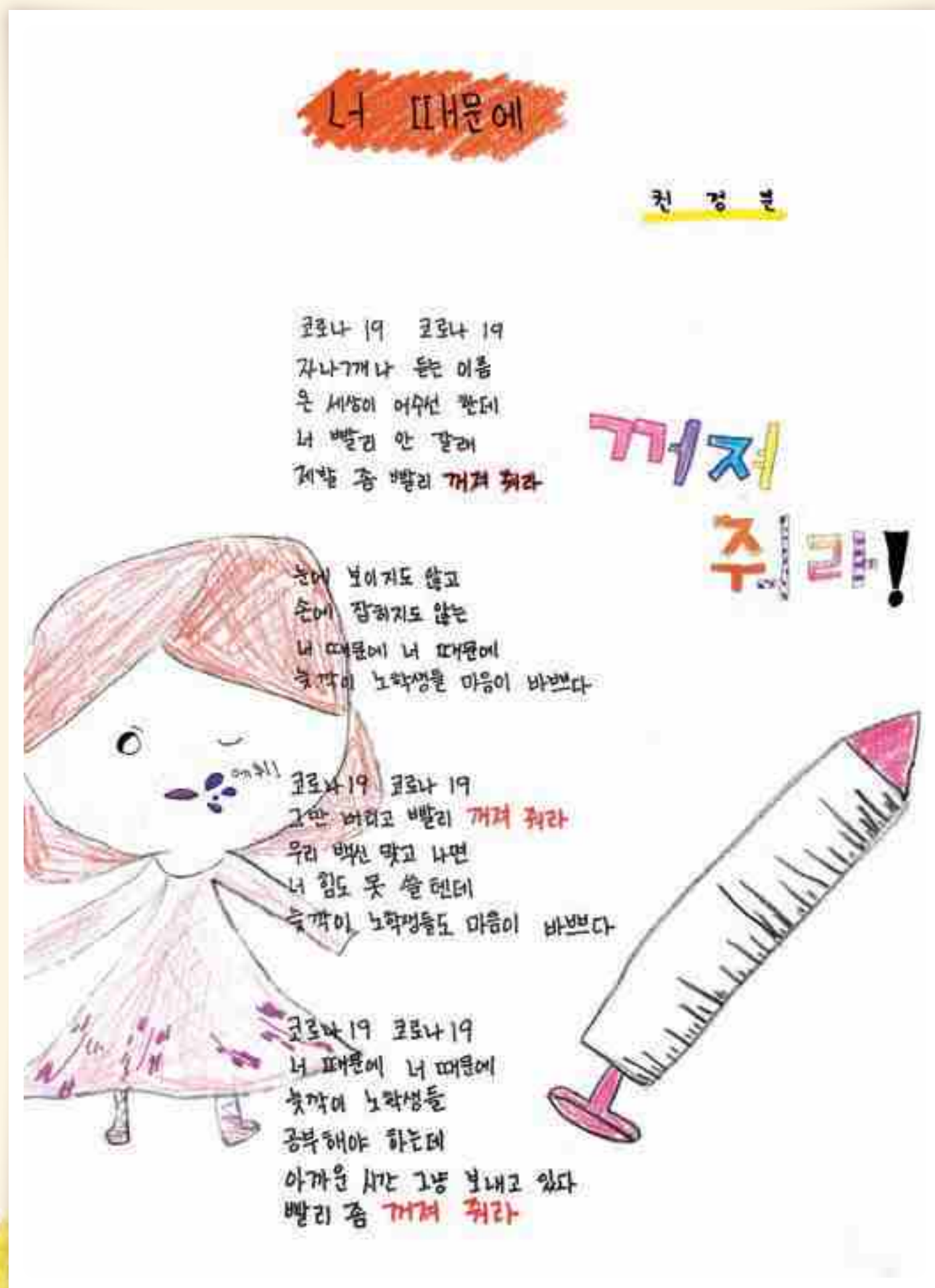
권정분 (77) / 연수구노인복지관

글자에  
담은  
희망의  
여정

2021. 9.

대한민국 문해의 달

2021년 인천광역시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코로나 19 코로나19  
자나깨나 듣는 이름  
온 세상이 어수선했는데  
너 빨리 안갈래  
제발 좀 빨리 꺼져 줘라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너 때문에 너 때문에  
늦감이 노학생들 마음이 바쁘다

코로나19 코로나19  
그만 버티고 빨리 꺼져 줘라  
우리 백신 맞고 나면  
너 힘도 못 쓸텐데  
늦감이 노학생들 마음이 바쁘다

코로나19 코로나19  
너 때문에 너 때문에  
늦감이 노학생들  
공부해야 하는데  
아까운 시간 그냥 보내고 있다  
빨리 좀 꺼져 줘라





우수상 인천광역시교육감상

# 선물 받은 날

박달희 (91) / 연수구노인복지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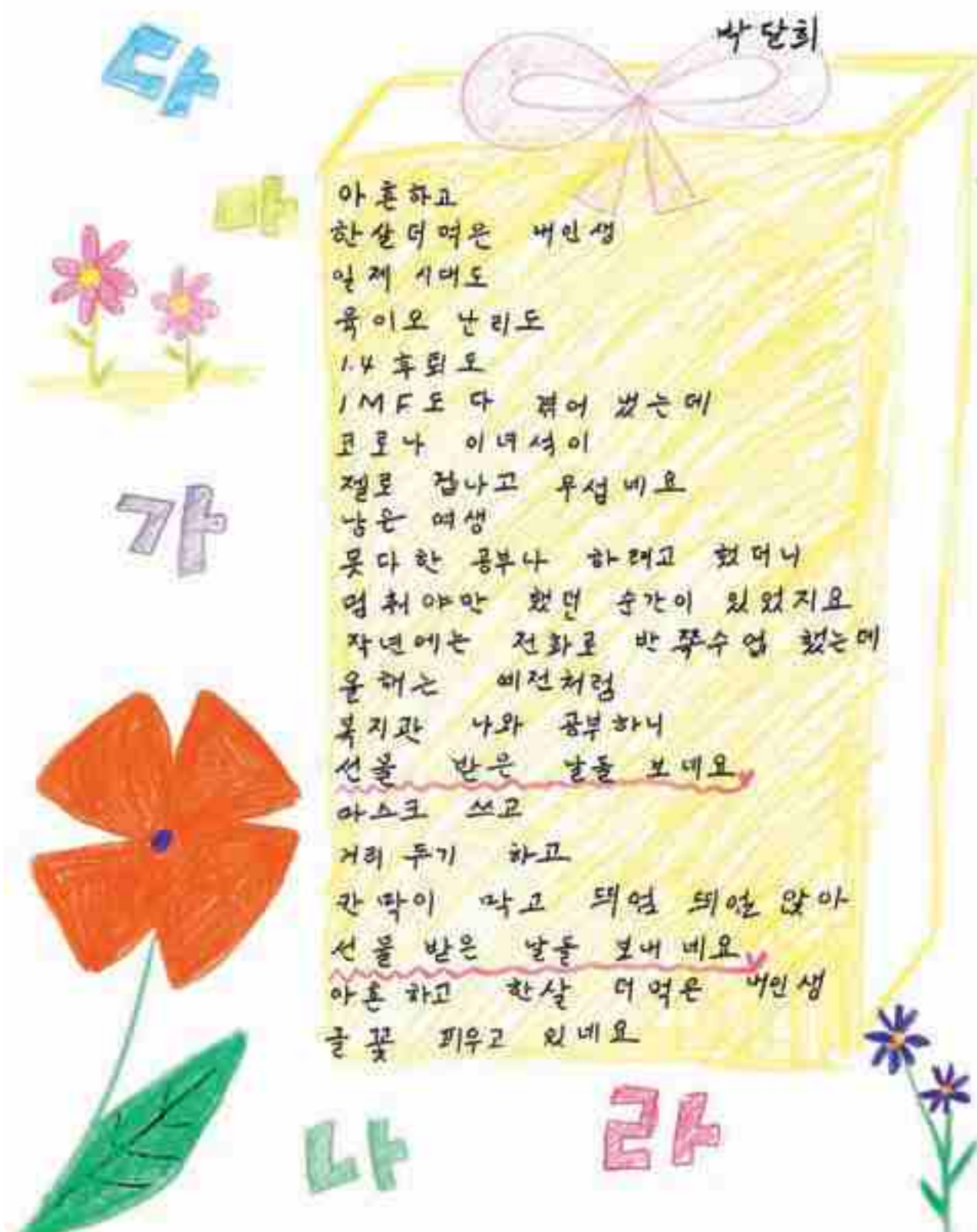
글자에  
담은  
희망의  
여정

2021. 9.

대한민국 문해의 달

2021년 인천광역시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 선물 받은 날



아흔하고 한 살 더 먹은 내 인생  
일제시대도  
육이오 난리도  
1.4 후퇴도  
IMF도 다 겪어 냈는데  
코로나 이 녀석이  
제일로 겁나고 무섭네요  
남은 여생  
못다 한 공부나 하려고 했더니  
멈춰야만 했던 순간이 있었지요  
작년에는 전화로 반쪽 수업 했는데  
올해는 예전처럼  
복지관 나와 공부하니  
선물 받은 날들 보내요  
마스크 쓰고  
거리두기 하고  
칸막이 막고 띄엄띄엄 앉아  
선물 받은 날들 보내네요  
아흔하고 한 살 더 먹은 내 인생  
글 꽃 피우고 있네요





장려상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상

# 멋진 인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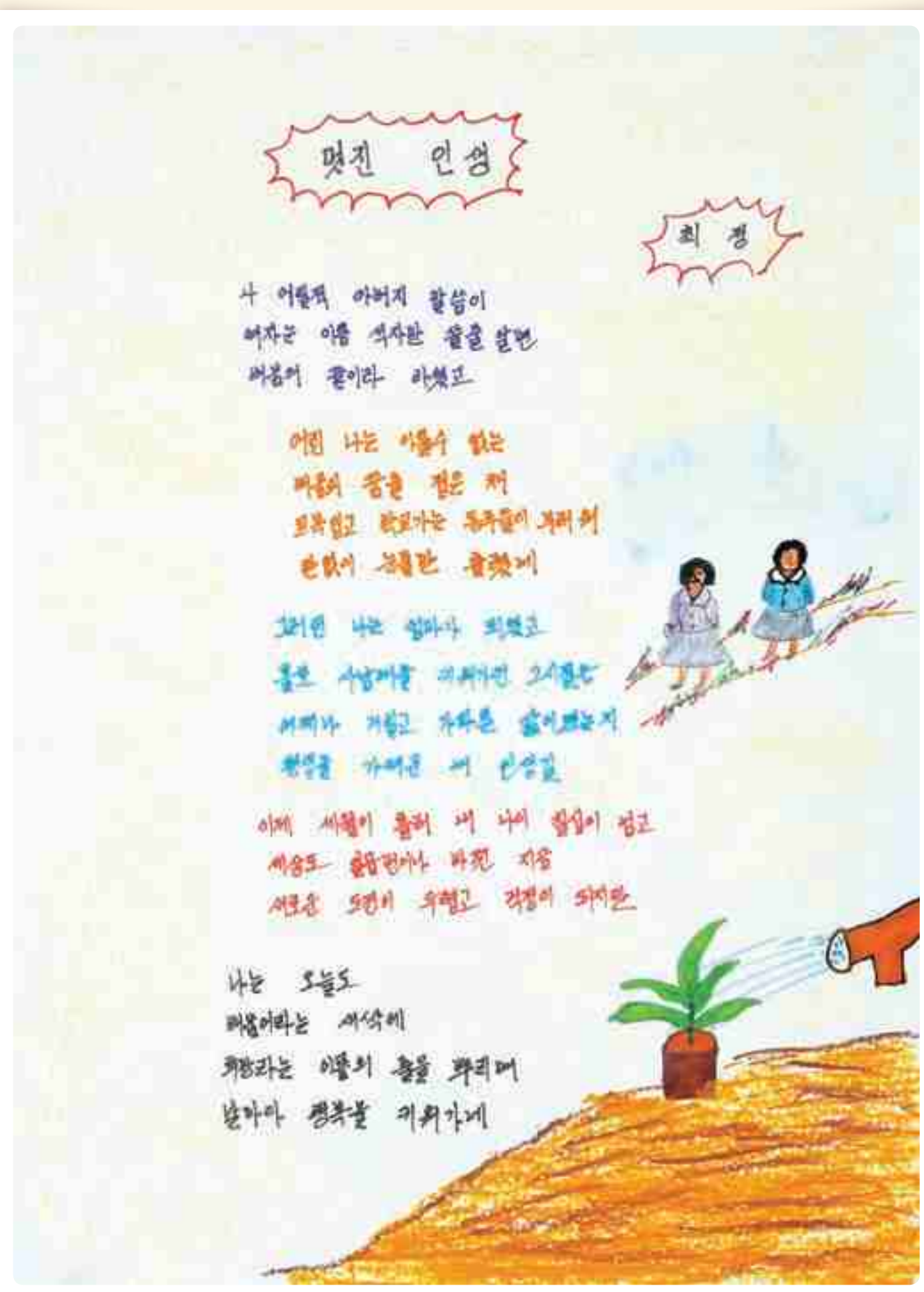
최 정 (78) / 인천광역시교육청평생학습관

글자에  
담은  
희망의  
여정

2021. 9.

대한민국 문해의 달

2021년 인천광역시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나 어릴 적 아버지 말씀이  
여자는 이름 석 자만 쓸 줄 알면  
배움의 끝이라 하셨고

어린 나는 이를 수 없는  
배움의 꿈을 접은 채  
교복입고 학교가는 동무들이 부러워  
한없이 눈물만 흘렸네

그러던 나는 엄마가 되었고  
홀로 사남매를 키워가던 그 시절은  
어찌나 거칠고 가파른 삶이었는지  
평생을 가여운 내 인생길

이제 세월이 흘러 내 나이 칠십이 넘고  
세상도 일곱 번이나 바뀐 지금  
새로운 도전이 두렵고 걱정이 되지만

나는 오늘도  
배움이라는 새싹에  
희망라는 이름의 물을 뿌리며  
날마다 행복을 키워가네





장려상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상

# 맹글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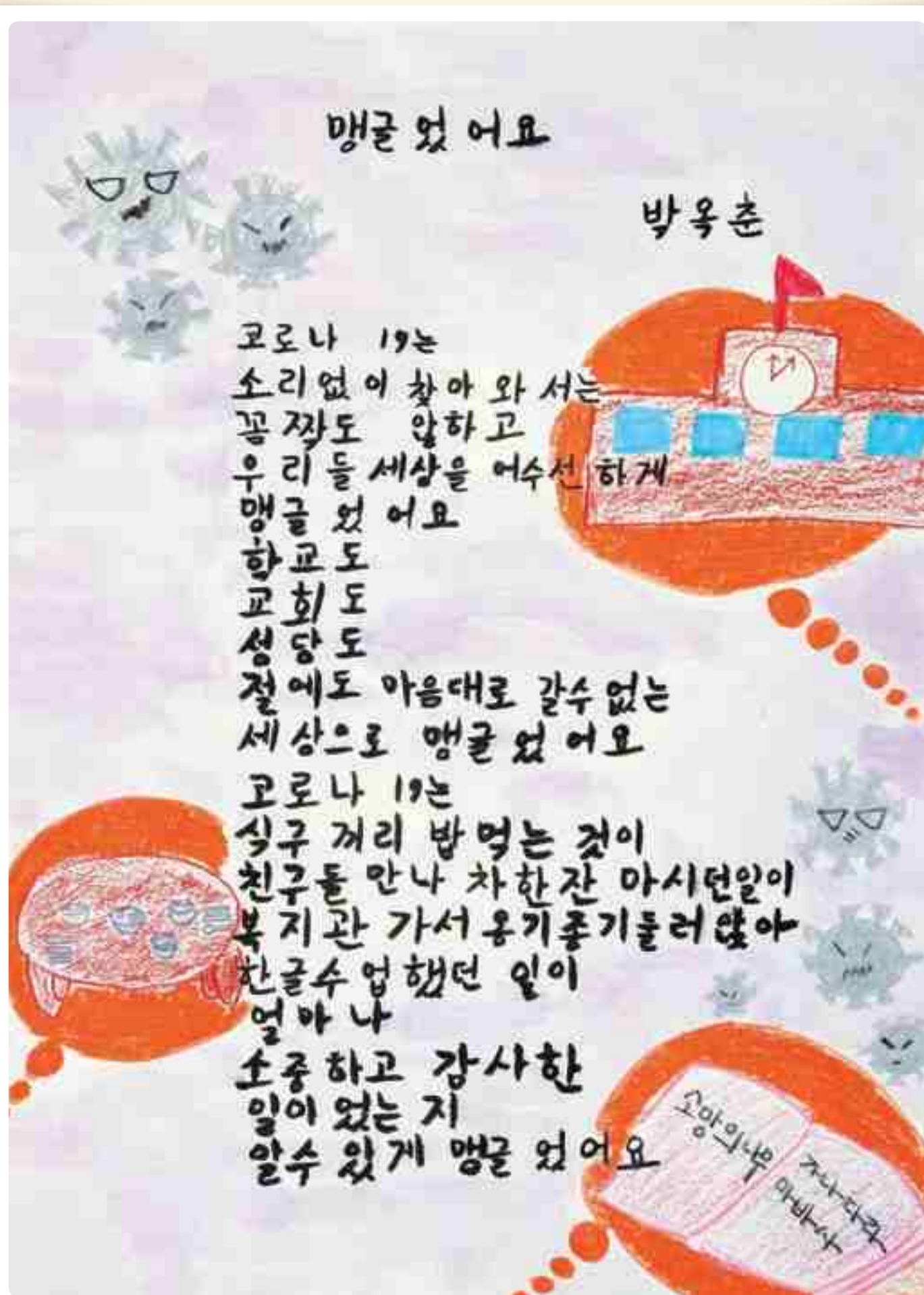
박옥춘 (67) / 청학노인복지관

글자에  
담은  
희망의  
여정

2021. 9.

대한민국 문해의 달

2021년 인천광역시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코로나 19는  
소리없이 찾아와서는  
꿈쩍도 안하고  
우리들 세상을 어수선하게  
맹글었어요  
학교도  
교회도  
성당도  
절에도 마음대로 갈 수 없는  
세상으로 맹글었어요  
코로나19는  
식구끼리 밥 먹는 것이  
친구들 만나 차 한잔 마시던 일이  
복지관 가서 옹기종기 둘러앉아  
한글 수업했던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일이었는지  
알 수 있게 맹글었어요





장려상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상

# 넙쿨장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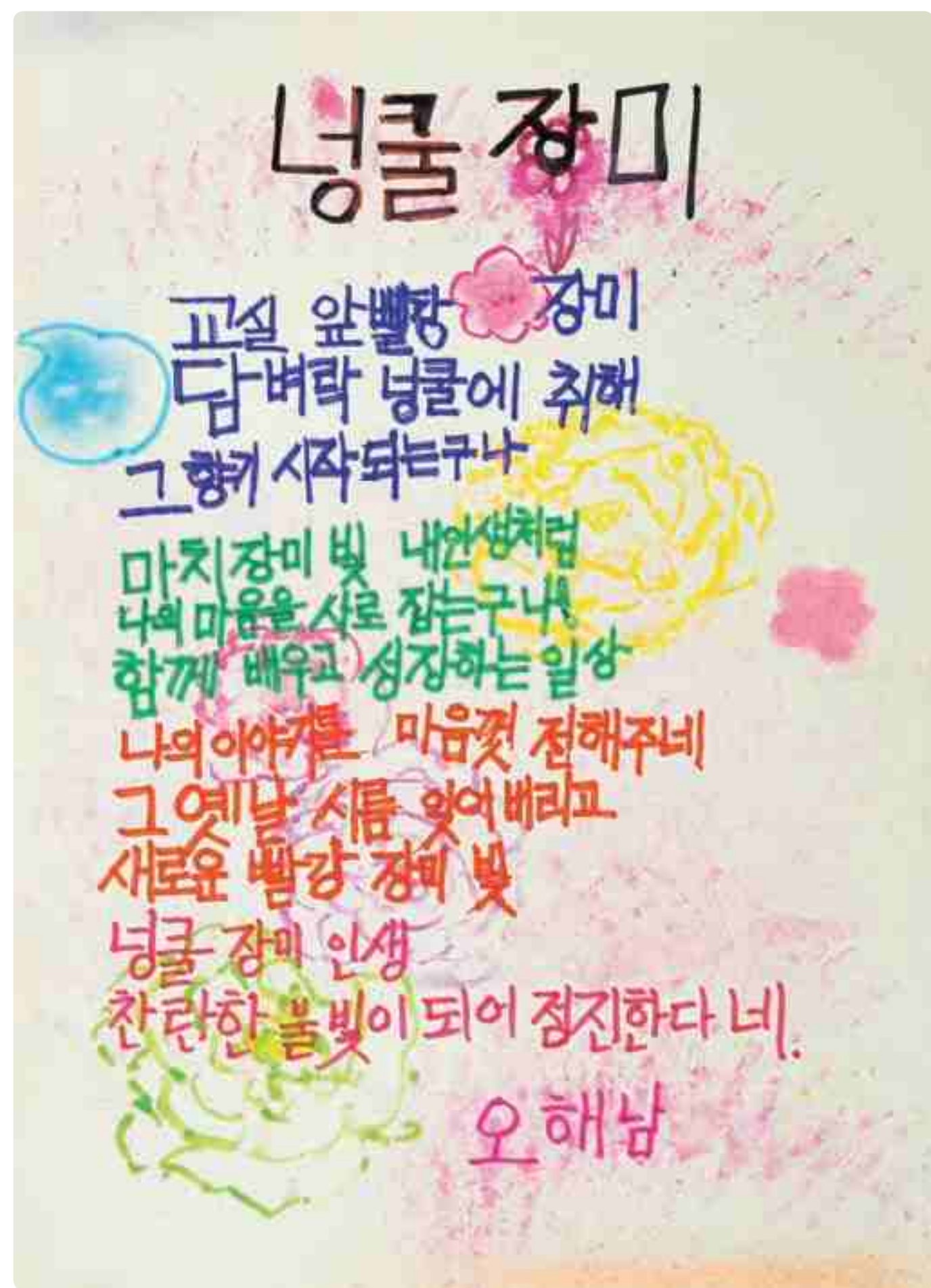
오 해 남 (79) / G(글로벌)문화평생교육원

글자에  
담은  
희망의  
여정

2021. 9.

대한민국 문해의 달

2021년 인천광역시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교실 앞 빨강 장미  
담벼락 넙쿨에 취해  
그 향기 시작되는구나

마치 장미빛 내 인생처럼  
나의 마음을 사로잡는구나!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일상

나의 이야기를 마음껏 전해주네  
그 옛날 시름 잊어버리고  
새로운 빨강 장미빛

넙쿨 장미 인생  
찬란한 불빛이 되어 정진한다네





장려상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상

# 언제쯤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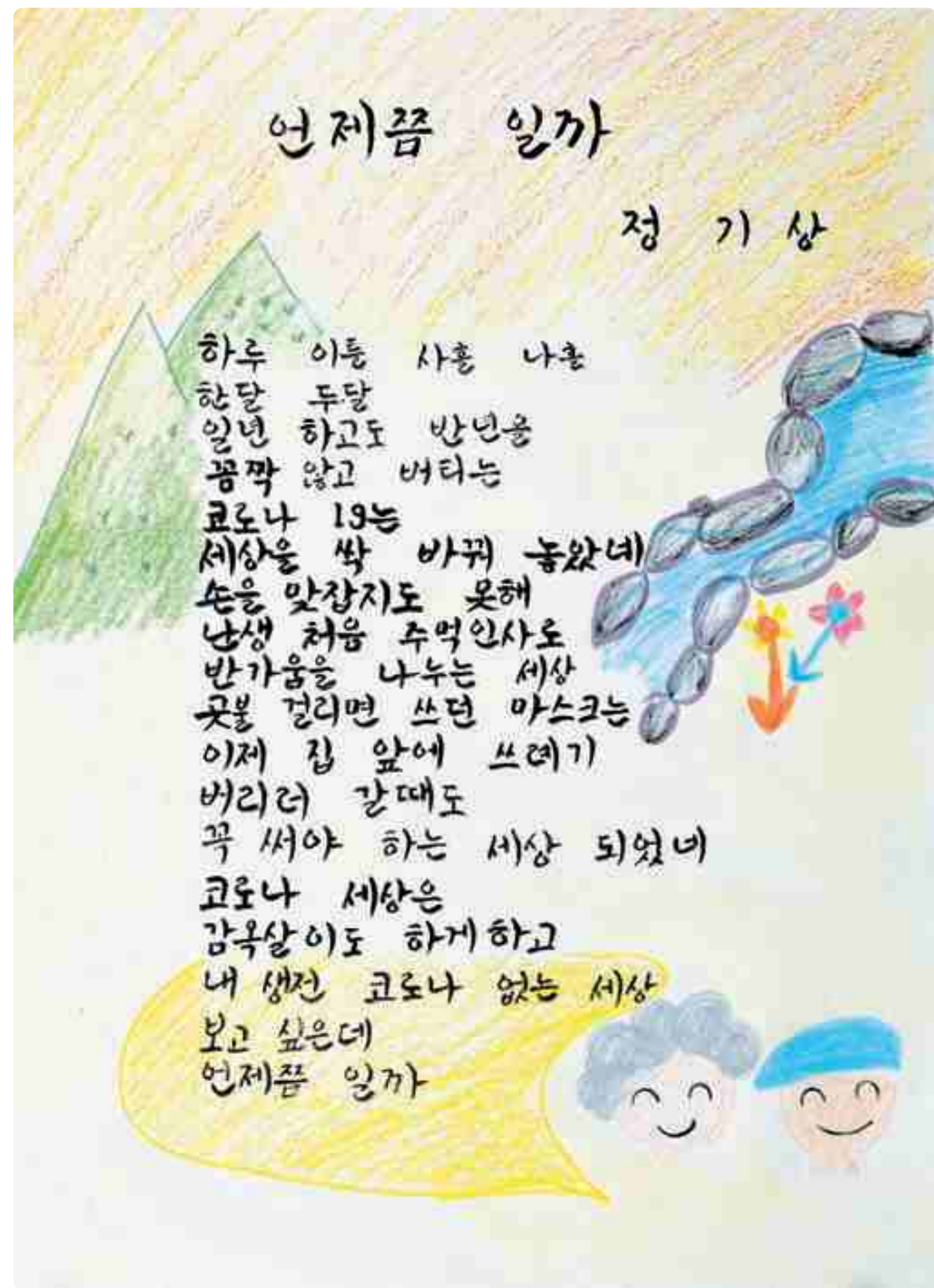
정 기 상 (77) / 청학노인복지관

글자에  
담은  
희망의  
여정

2021. 9.

대한민국 문해의 달

2021년 인천광역시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하루 이틀 사흘 나흘  
한 달 두 달  
일 년하고도 반년을  
꿈작 앓고 버티는  
코로나 19는  
세상을 싹 바꿔 놓았네  
손을 맞잡지도 못해  
난생처음 주먹인사로  
반가움을 나누는 세상  
곳불 걸리면 쓰던 마스크는  
이제 집 앞에 쓰레기  
버리러 갈 때도  
꼭 써야 하는 세상 되었네  
코로나 세상은  
감옥살이도 하게 하고  
내 생전 코로나 없는 세상  
보고 싶은데  
언제쯤일까





장려상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상

# 내 마음의 꼬마

이 입 분 (56) / 불휘깊은한문화재한지킴이

글자에  
담은  
희망의  
여정

2021. 9.

대한민국 문해의 달

2021년 인천광역시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내 마음의 꼬마

불휘깊은 문해교실 이입분

1학년 입학을 했는데

주사 있는 오빠가 공부를 못하게 방해했다.

공부를 할 수 없어 다마공장 돈 벌러  
집 떠나  
방황하며 살았네.



운전 면허도 따고 싶고 컴퓨터도 배우고 싶은데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네.

늘 내 마음 한 구석에  
쫄고리고 훌쩍이고 있는 나,  
사는 게 뭐 그리 바쁜지.



이제는 용기를 내자  
내 마음의 작은 나에게 힘을 주자  
한글 공부하면서 내 마음의 꼬마가  
조금씩 자라 난다.

1학년 입학을 했는데

주사 있는 오빠가 공부를 못하게 방해했다

공부를 할 수 없어 다마공장 돈 벌러

집 떠나 방황하며 살았네

운전 면허도 따고 싶고 컴퓨터도 배우고 싶은데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네

늘 내 마음 한 구석에

쫄고리고 훌쩍이고 있는 나,

사는게 뭐 그리 바쁜지

이제는 용기를 내자

내 마음의 작은 나에게 힘을 주자

한글 공부하면서 내 마음의 꼬마가

조금씩 자라난다





장려상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상

글자에  
담은  
희망의  
여정

2021. 9.

대한민국 문해의 달

2021년 인천광역시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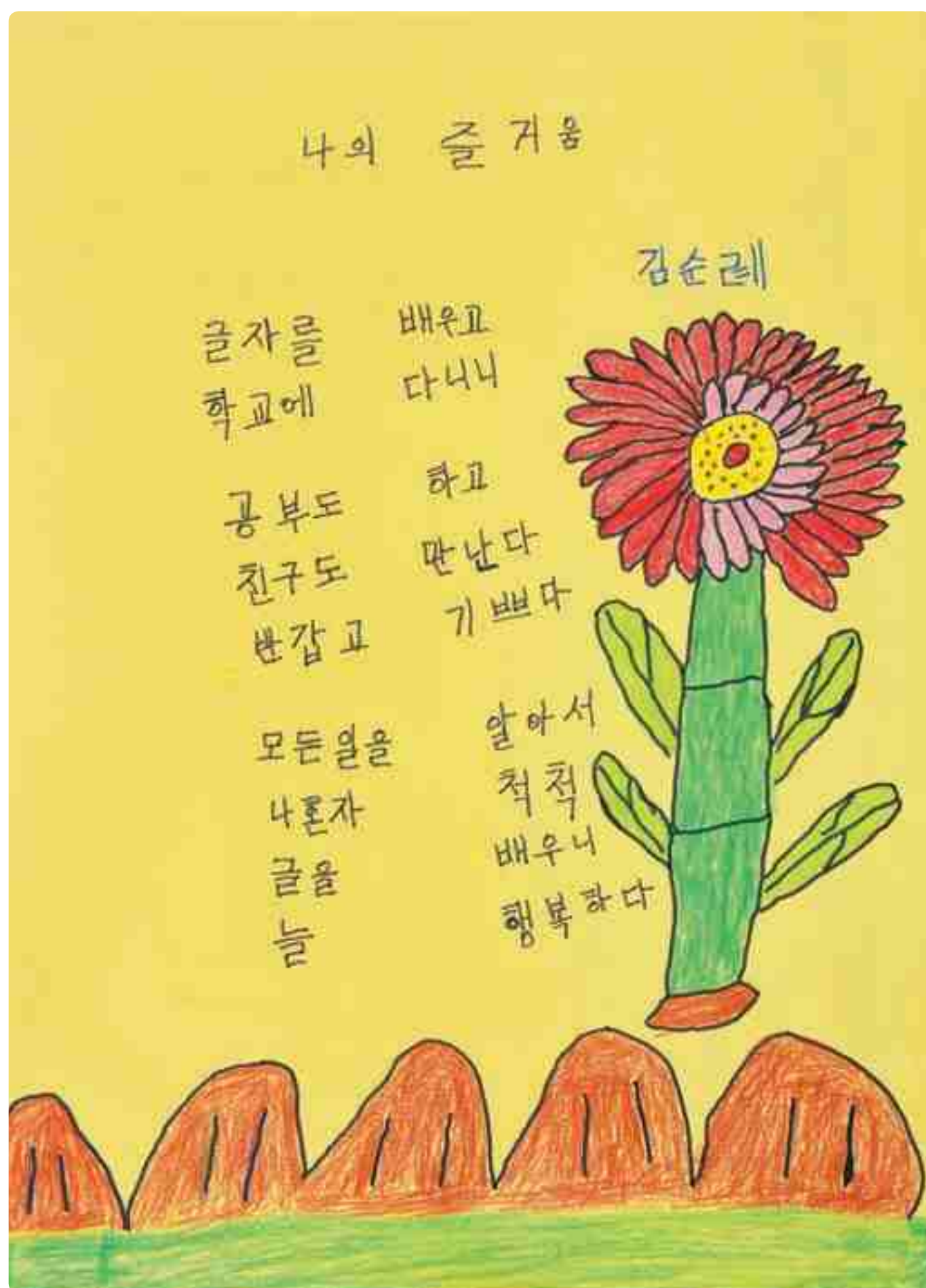
## 나의 즐거움

김 순 례 (70) / 인천광역시교육청계양도서관

글자를 배우고  
학교에 다니니

공부도 하고  
친구도 만나다  
반갑고 기쁘다

모든 일을 알아서  
나 혼자 척척  
글을 배우니  
늘 행복하다







장려상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상

# 배움의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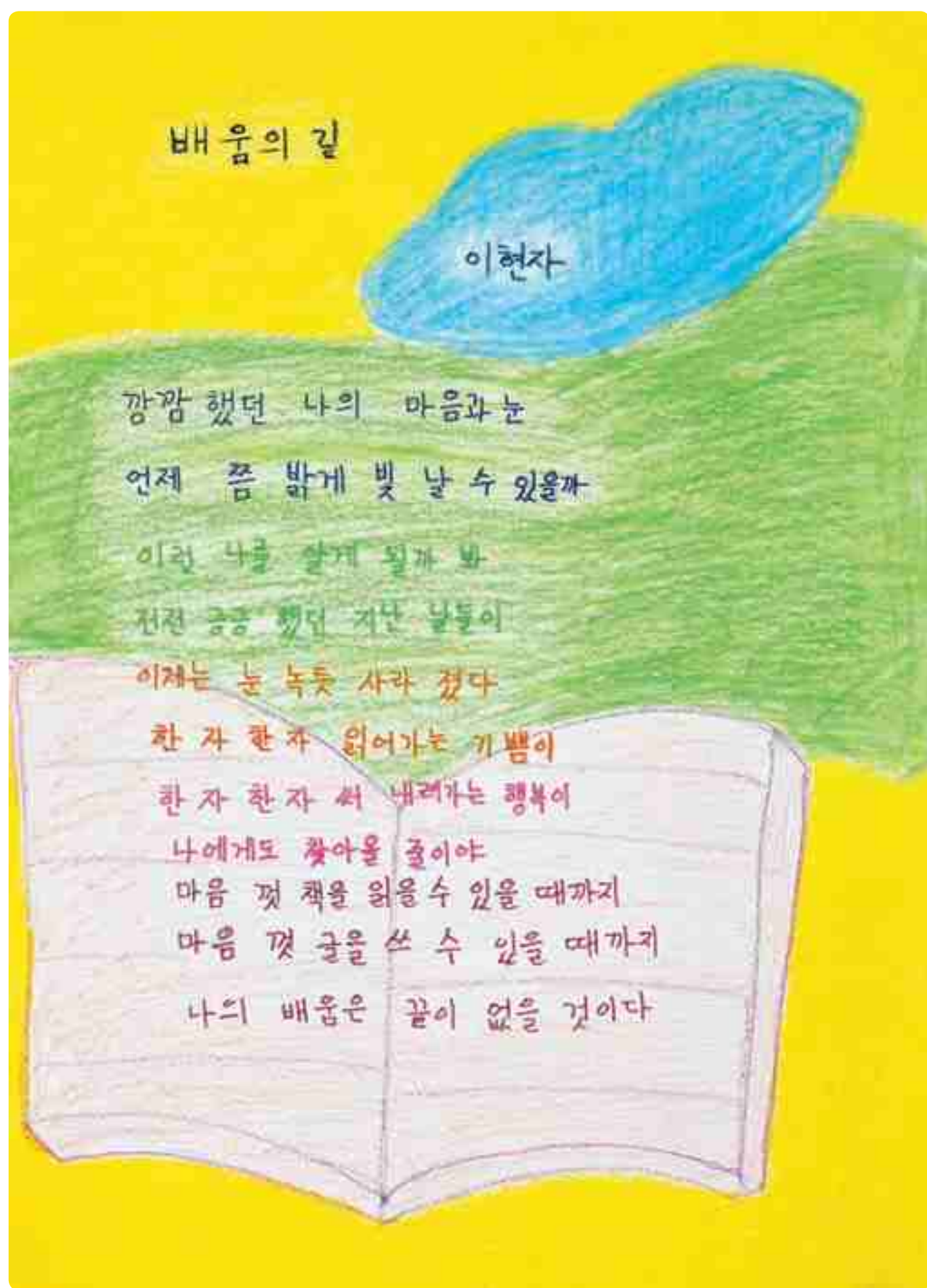
이 현 자 (65) / 세화종합사회복지관

글자에  
담은  
희망의  
여정

2021. 9.

대한민국 문해의 달

2021년 인천광역시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깜깜했던 나의 마음과 눈  
언제쯤 밝게 빛날 수 있을까

이런 나를 알게 될까봐  
전전긍긍 했던 지난 날들이

이제는 눈 녹듯 사라졌다

한 자 한 자 읽어가는 기쁨이  
한 자 한 자 써 내려가는 행복이  
나에게도 찾아올 줄이야

마음껏 책을 읽을 수 있을 때까지  
마음껏 글을 쓸 수 있을 때까지  
나의 배움은 끝이 없을 것이다





장려상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상

## 우리집은 D동

김기태 (80) / 지역문화사회복지센터

글자에  
담은  
희망의  
여정

2021. 9.

대한민국 문해의 달

2021년 인천광역시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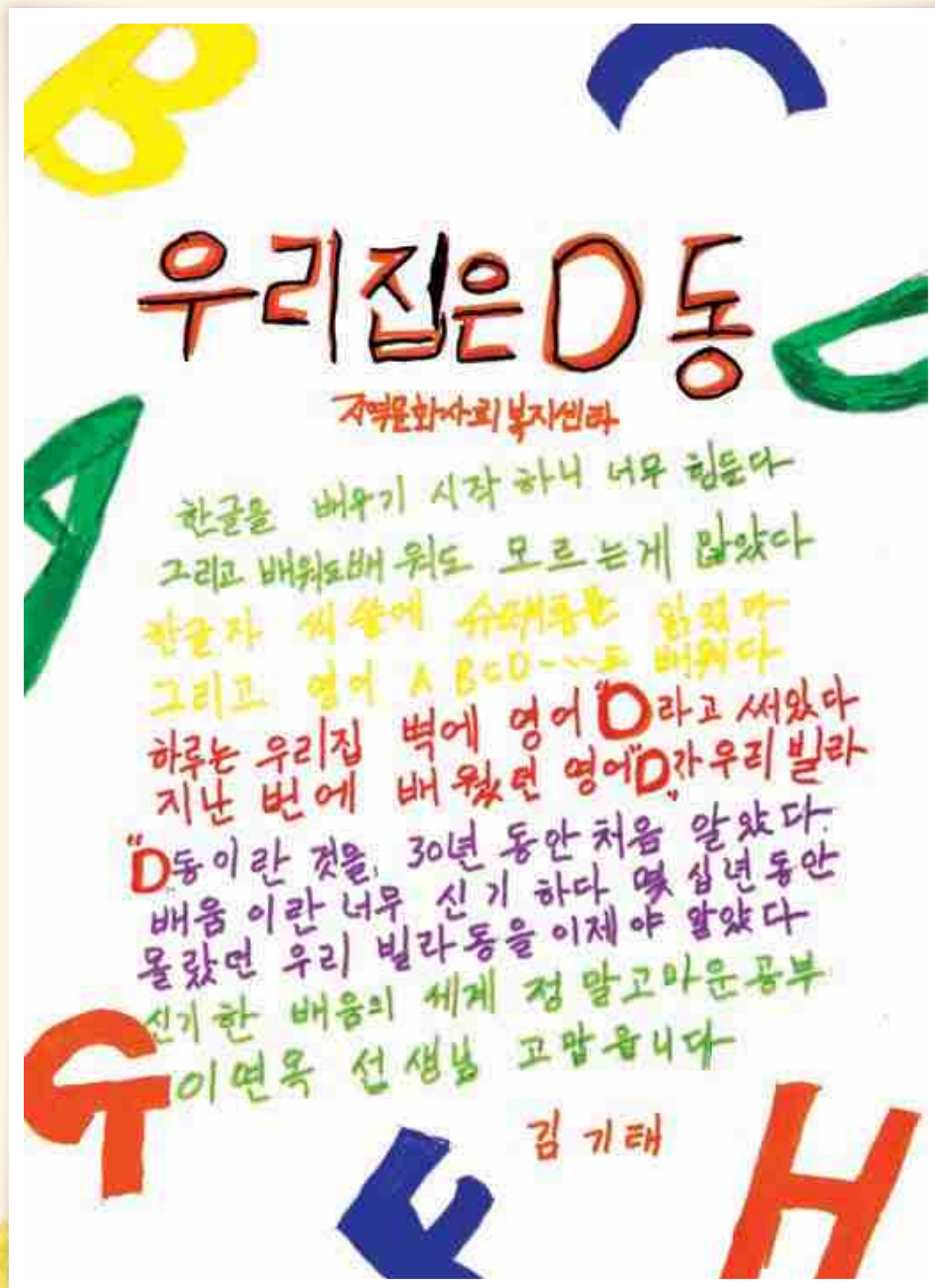
한글을 배우기 시작하니 너무 힘들다  
그리고 배워도 배워도 모르는게 많았다

한 글자씩 쓸 때 슈퍼이름을 읽었다  
그리고 영어 ABCD도 배웠다

하루는 우리집 벽에 “D”라고 써있다  
지난번에 배웠던 영어 “D”가 우리 빌라  
“D”동이란 것을, 30년 동안 처음 알았다

배움이란 너무 신기하다 몇십 년 동안  
몰랐던 우리 빌라 동을 이제야 알았다

신기한 배움의 세계 정말 고마운 공부  
이연옥 선생님 고맙습니다







장려상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상

글자에  
담은  
희망의  
여정

2021. 9.

대한민국 문해의 달

2021년 인천광역시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 산책길

이 계 순 (60) / 학력인정남인천고등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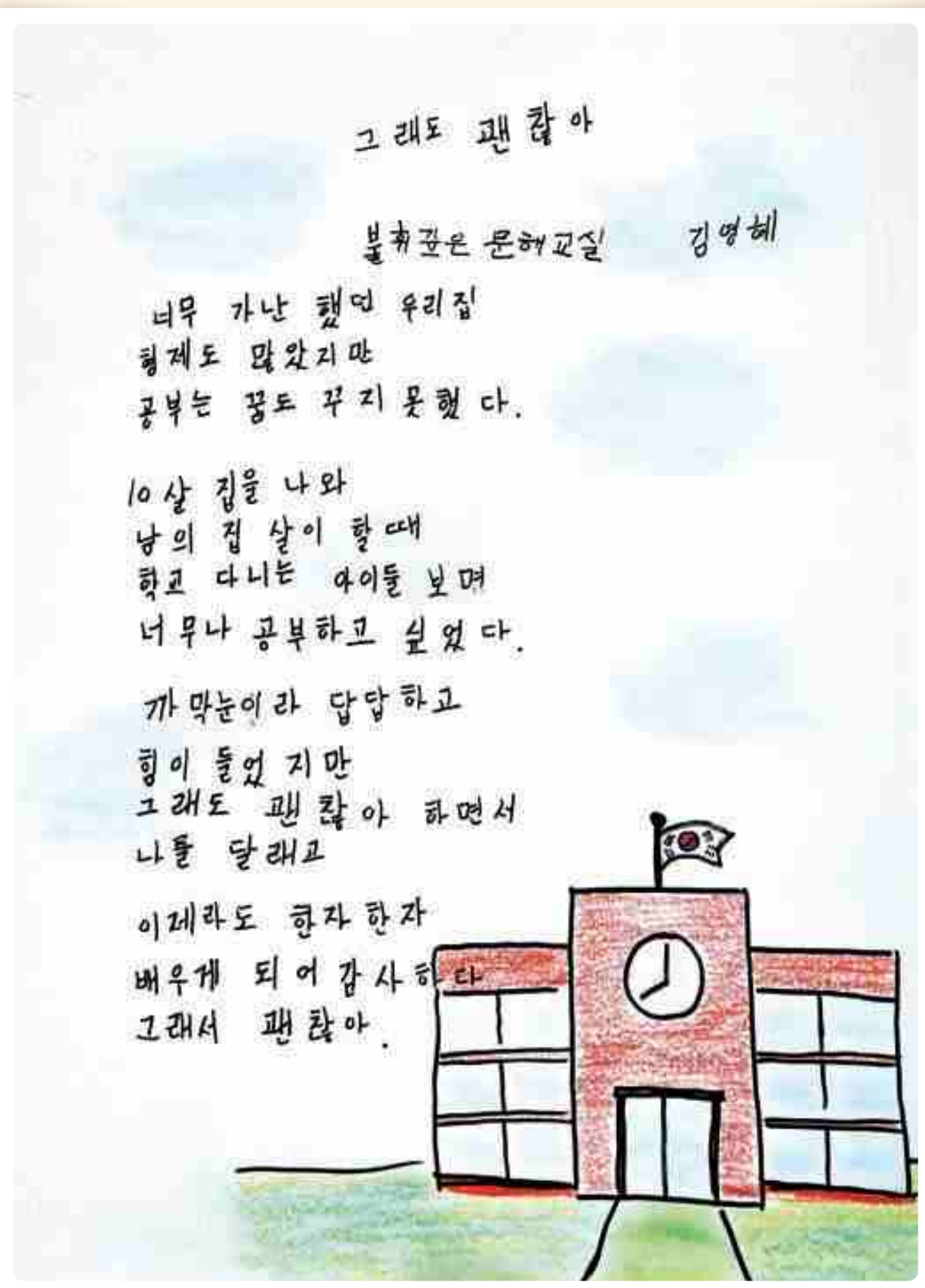


하늘의 뭉게구름 바라볼 때  
밝은 빛을 비추며 찾아온 햇님  
향긋한 들꽃 냄새에 취해 있을 때  
기쁜 소식 전하러 날아온 까치  
세상을 밝게 비추는 햇살  
동산에 아름답게 피어난 들꽃들  
날아가는 새들을 향해~  
환한 미소로 화답한다  
사랑스런 나의 벗들에게~





장려상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상



## 그래도 괜찮아

김영혜 (59) / 불휘깊은한문화재한지킴이

너무 가난했던 우리 집  
형제도 많았지만  
공부는 꿈도 꾸지 못했다

10살 집을 나와  
남의 집 살이할 때  
학교다니는 아이들 보며  
너무나 공부하고 싶었다

까막눈이라 답답하고  
힘이 들었지만  
그래도 괜찮아 하면서  
나를 달라고

이제라도 한자 한자  
배우게 되어 감사하다  
그래서 괜찮아

글자에  
담은  
희망의  
여정

2021. 9.

대한민국 문해의 달

2021년 인천광역시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장려상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상

# 즐거운 인생 시작이다

장 순 이 (71) / 인천광역시교육청연수도서관

글자에  
담은  
희망의  
여정

2021. 9.

대한민국 문해의 달

2021년 인천광역시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즐거운 인생 시작이다

장 순 이

친구들과 같이 공연장에 갔다.  
스마트폰에 불을 켜고 흔들며 소리쳤다.  
신나고 즐거웠다  
함께 어울리는 시간 이였다.

늘 뒷전에서  
과묵한 사람처럼  
어울리기를 멀리했고  
사람들이 어렵게만 느껴졌다.

배우고 익힐 때  
마음속엔 보물이 쌓이듯이 뿌듯 했다.  
용기와 의욕이 솟아 올라  
몸도 마음도 이팔청춘 같다.

사람들 앞에 떳떳하게 나설 수 있고  
이젠 가고픈 곳도 갈 자신이 있다.  
배운다는 건 자신감이 생기고  
세상도 아름다워 보인다.



친구들과 같이 공연장에 갔다  
스마트폰에 불을 켜고 흔들며 소리쳤다  
신나고 즐거웠다  
함께 어울리는 시간이었다

늘 뒷전에서  
과묵한 사람처럼  
어울리기를 멀리했고  
사람들이 어렵게만 느껴졌다

배우고 익힐 때  
마음속엔 보물이 쌓이듯이 뿌듯했다  
용기와 의욕이 솟아올라  
몸도 마음도 이팔청춘 같다

사람들 앞에 떳떳하게 나설 수 있고  
이젠 가고픈 곳도 갈 자신이 있다  
배운다는 건 자신감이 생기고  
세상도 아름다워 보인다





격려상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상

글자에  
담은  
희망의  
여정

2021. 9.

대한민국 문해의 달

2021년 인천광역시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한글공부

이일수

오늘도 학교에 가는길  
만나는 반가운 얼굴들

우리 아기 호성이가 유치원에서  
뭐 배웠니 물어 봤더니 몰라 라고 한다

할머니도 몰라

한글자도 몰라

호성아 미안해

## 한글공부

이 일 수 (80) / 계양구평생학습관

오늘도 학교에 가는 길  
만나는 반가운 얼굴들

우리 아기 호성이가 유치원에서  
뭐 배웠니 물어봤더니 몰라라고 한다

할머니도 몰라  
한글자도 몰라  
호성아 미안해





격려상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상

# 그리웠던 학교

김 순 분 (78) / 인천광역시교육청중앙도서관

글자에  
담은  
희망의  
여정

2021.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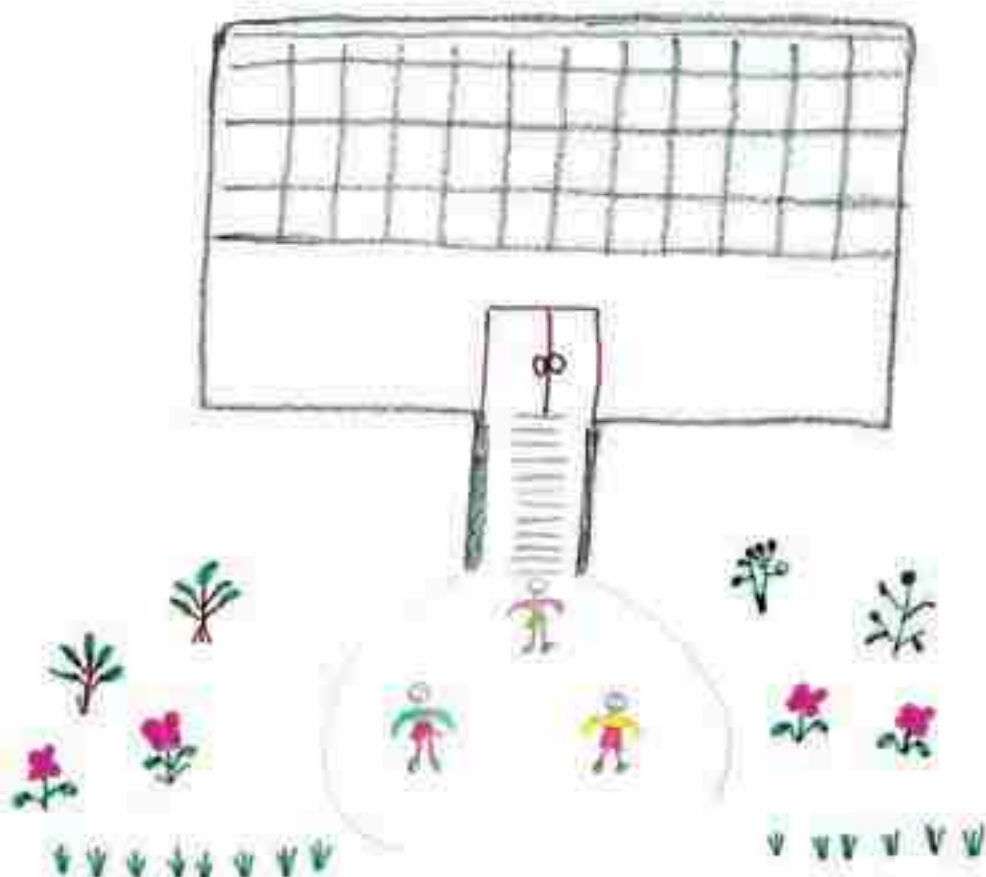
대한민국 문해의 달

2021년 인천광역시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 그 리 윳 던 학 교

학교가는 꿈을 가끔 꾀다  
학교에서 내 반을 찾아도 없었다  
어른이 되어 사회생활 할 때 배우지 못하여서  
기가 죽고 자신이 없었다 삶에 바빠서  
공부할 생각도 못했다 정부에서 무료로 가르치는 것도  
몰랐다 공부하라는 열거할 땐 울렸지만  
이제는 자신이 생긴다 열심히 배워서  
능력이 되면 건강이 유지되면 중 고 대학  
졸업장 받고 싶다 현사회 우리나라가  
이런 혜택을 줘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다

김 순 분



학교가는 꿈을 가끔 꾀다

학교에서 내 반을 찾아도 없었다

어른이 되어 사회생활 할 때 배우지 못하여서

기가 죽고 자신이 없었다

삶에 바빠서 공부할 생각도 못했다

정부에서 무료로 가르치는 것도 몰랐다

공부한지는 몇 개월 되진 않았지만 이제는 자신이 생긴다

열심히 배워서 능력이 되면 건강이 유지되면

중 고 대학 졸업장 받고 싶다

현사회 우리나라가

이런 혜택을 줘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다





격려상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상

## 동영상 수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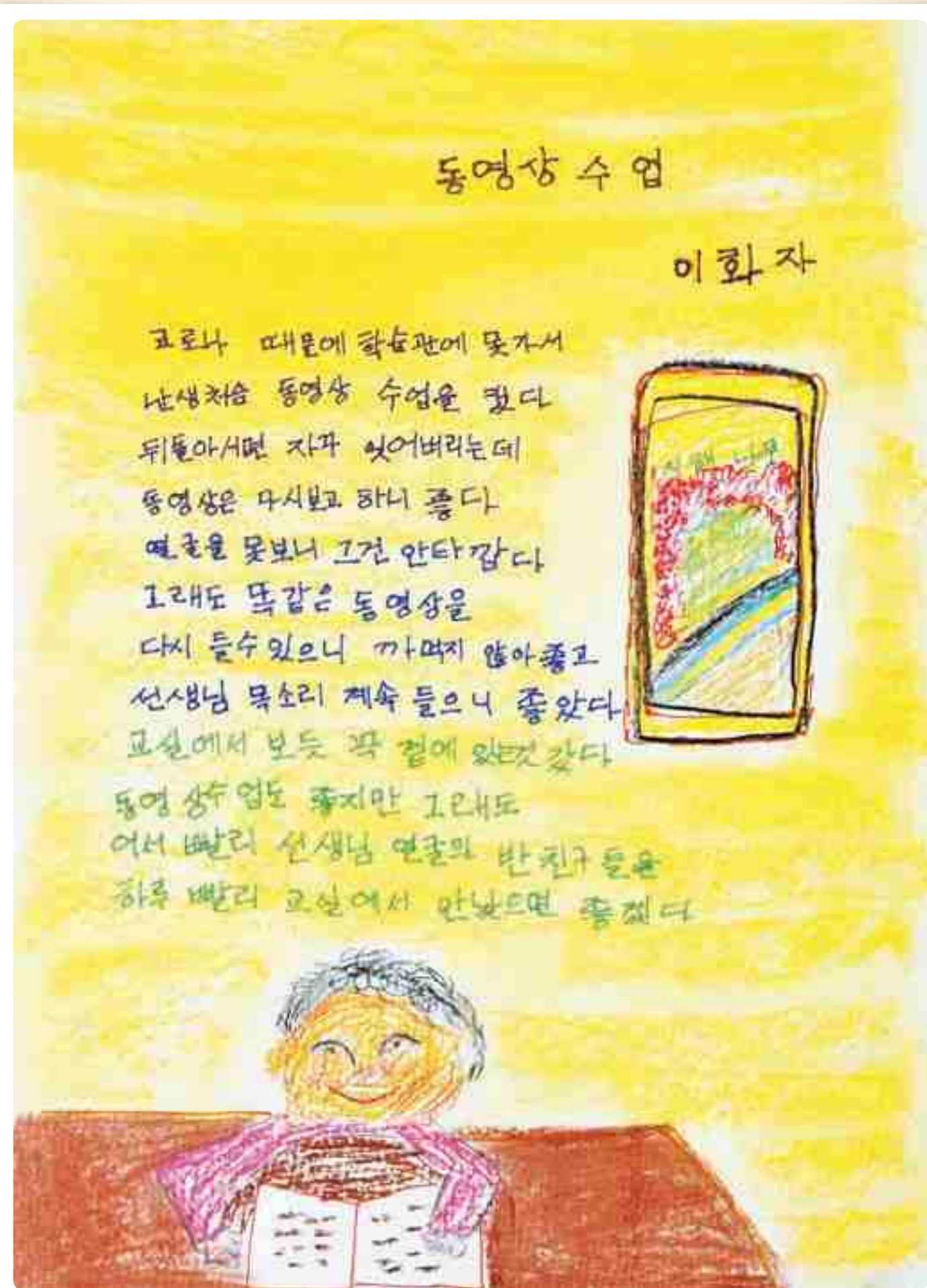
이 화 자 (80) / 인천광역시교육청평생학습관

글자에  
담은  
희망의  
여정

2021. 9.

대한민국 문해의 달

2021년 인천광역시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코로나 때문에 학습관에 못가서  
난생처음 동영상 수업을 켜다  
뒤돌아서면 자꾸 잊어버리는데  
동영상은 다시 보고 하니 좋다  
얼굴을 못 보니 그건 안타깝다  
그래도 똑같은 동영상을  
다시 들을 수 있으니 까먹지 않아 좋고  
선생님 목소리 계속 들으니 좋았다  
교실에서 보듯 꼭 곁에 있는 것 같다  
동영상 수업도 좋지만 그래도  
어서 빨리 선생님 얼굴과 반 친구들을  
하루 빨리 교실에서 만났으면 좋겠다





격려상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상

# 행복한 발걸음

위강임 (76) / 미추홀구평생학습관

글자에  
담은  
희망의  
여정

2021. 9.

대한민국 문해의 달

2021년 인천광역시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50년전 나는 섬마을로 시집을 갔는데 어느 겨울에 동네  
아주머니가 바닷가에서 굴을 따가지고 인천으로 보낸다고 나보고  
자기네 굴깡통에 이름을 써라고 했습니다.  
나는 속으로 나도 글자를 모르는데 자기네 딸 이름을 써달라고  
해서 가슴이 두근두근 했습니다.  
그래서 굴 깡통에 물이 묻어서 이름이 써지지 않는다고  
핑계를 대고 도망치듯 집으로 왔습니다.  
오면서 생각해 보아 글 모르는 내가 너무 슬퍼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이 행복합니다.  
평생학습관임 알게되어 공부하러 간다는 것이  
너무 들떠서 마음이 행복 합니다.  
여름이면 땀이 나고 더워도 학교만 가면 발걸음도  
가벼워져 공부한다는 것이 꿈만 같아요.  
어디 가셔도 위강임이라는 이름을 쓸 수 있으니깐요.  
한글아 기다려라 위강임이 간다.  
♡♡ 평생 학습관 단임 선생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나는 지금이 행복합니다.

50년 전 나는 섬마을로 시집을 갔는데 어느 겨울에 동네 아주머니가 바닷가에서 굴을 따 가지고 인천으로 보낸다고 나보고 자기네 굴 깡통에 이름을 써라고 했습니다

나는 속으로 나도 글자를 모르는데 자기네 딸 이름을 써달라고 해서 가슴이 두근두근 했습니다  
그래서 굴 깡통에 물이 묻어서 이름이 써지지 않는다고 핑계를 대고 도망치듯 집으로 왔습니다  
오면서 생각해 보니 글 모르는 내가 너무 슬퍼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이 행복합니다

평생학습관을 알게되어 공부하러 간다는 것이  
너무 들떠서 마음이 행복합니다

여름이면 땀이 나고 더워도 학교만 가면 발걸음도  
가벼워져 공부한다는 것이 꿈만 같아요

어디가셔도 위강임이라는 이름을 쓸 수 있으니깐요  
한글아 기다려라 위강임이 간다  
평생학습관 단임선생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나는 지금이 행복합니다





격려상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상

# 아들 딸에게

황 옥 선 (60) / 작전도서관

글자에  
담은  
희망의  
여정

2021.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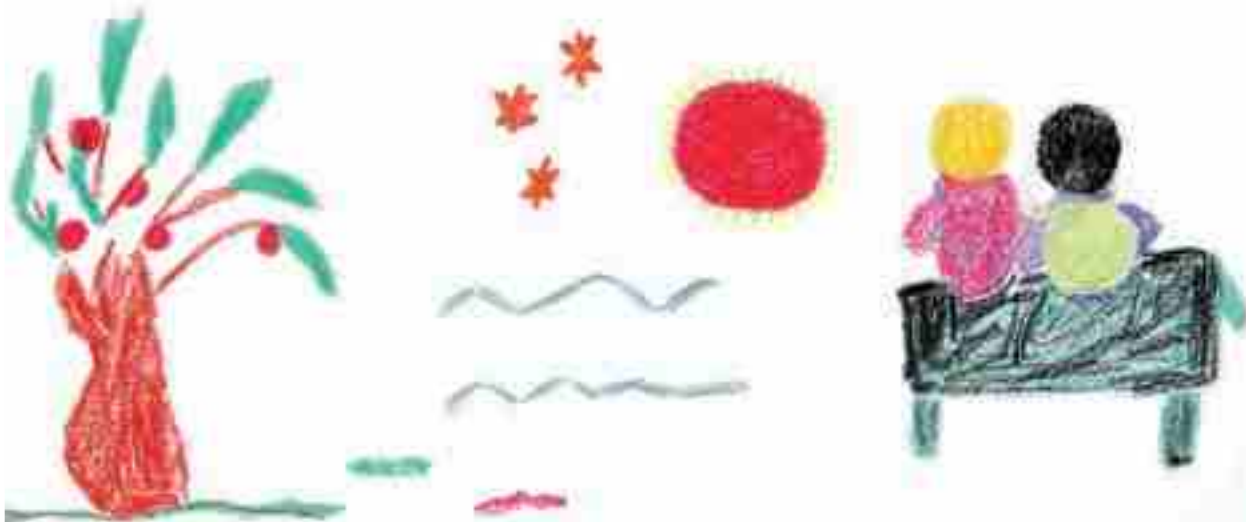
대한민국 문해의 달

2021년 인천광역시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아들 딸에게

황 옥 선

나는 항상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했다.  
왜 자녀가 학교에서  
가정통신문을 가지고 오면  
답을 못 써주고 그냥 보내곤 했다.  
남편이 모르고 그냥 가면  
그날은 아이들이  
“엄마 이거 써주세요”  
그때도 한번도 그걸 못써줬다.  
지금 생각하면 못난 엄마  
만나서 참 미안하다.  
그래도 아들 딸이  
참 잘 커졌어  
엄마 마음이 더 아파  
항상 우리 아들 딸 고맙다.  
“많이 사랑해” 엄마가



나는 항상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했다

왜 자녀가 학교에서

가정통신문을 가지고 오면

답을 못 써주고 그냥 보내곤 했다

남편이 모르고 그냥 가면

그날은 아이들이

“엄마 이거 써주세요”

그래도 한 번도 그걸 못써줬다

지금 생각하면 못난 엄마

만나서 참 미안하다

그래도 아들 딸이

참 잘 커졌어

엄마 마음이 더 아파

항상 우리 아들 딸 고맙다

“많이 사랑해” 엄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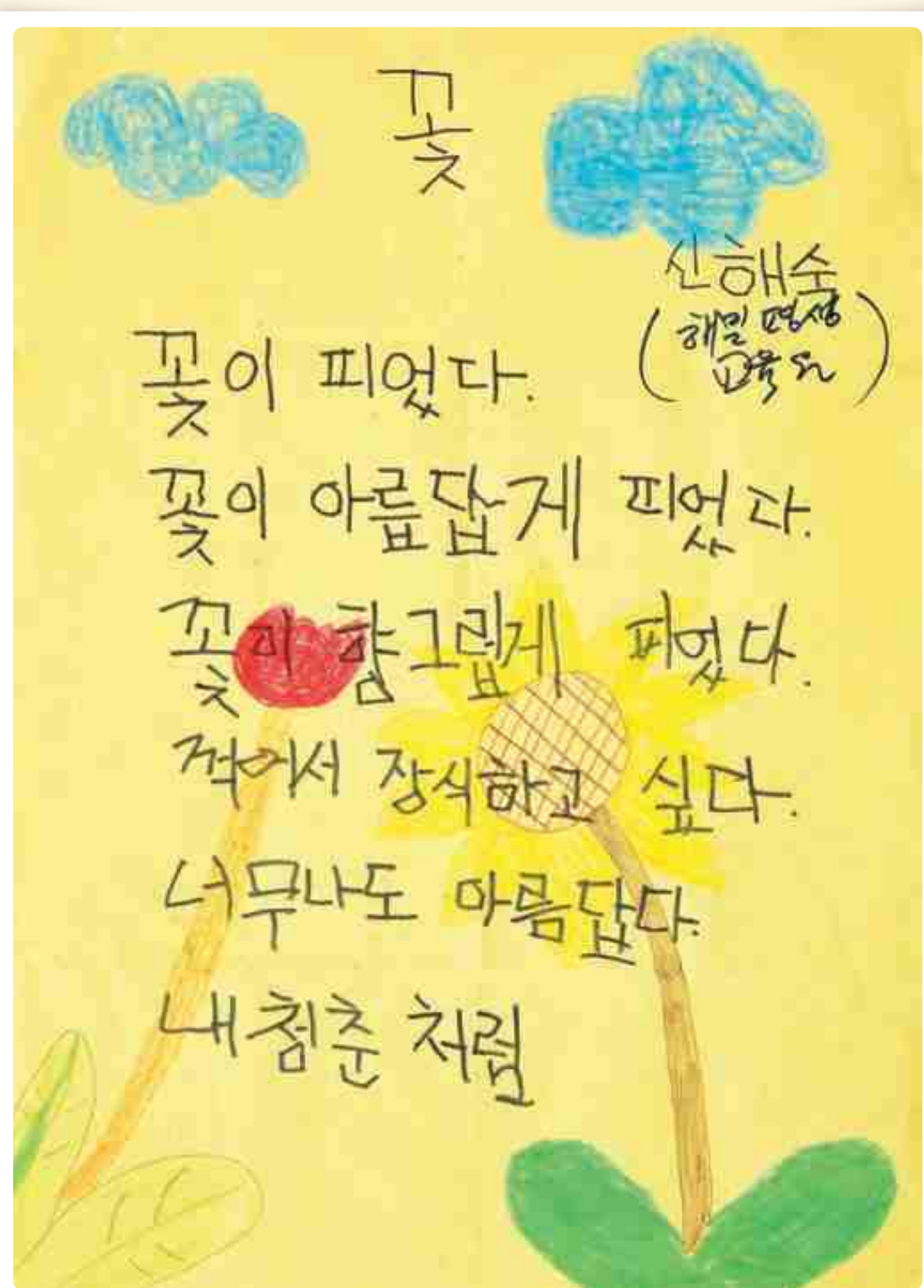
격려상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상

글자에  
담은  
희망의  
여정

2021. 9.

대한민국 문해의 달

2021년 인천광역시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 꽃

신해숙 (74) / 해밀평생교육원

꽃이 피었다

꽃이 아름답게 피었다

꽃이 향그럽게 피었다

꺾어서 장식하고 싶다

너무나도 아름답다

내 청춘처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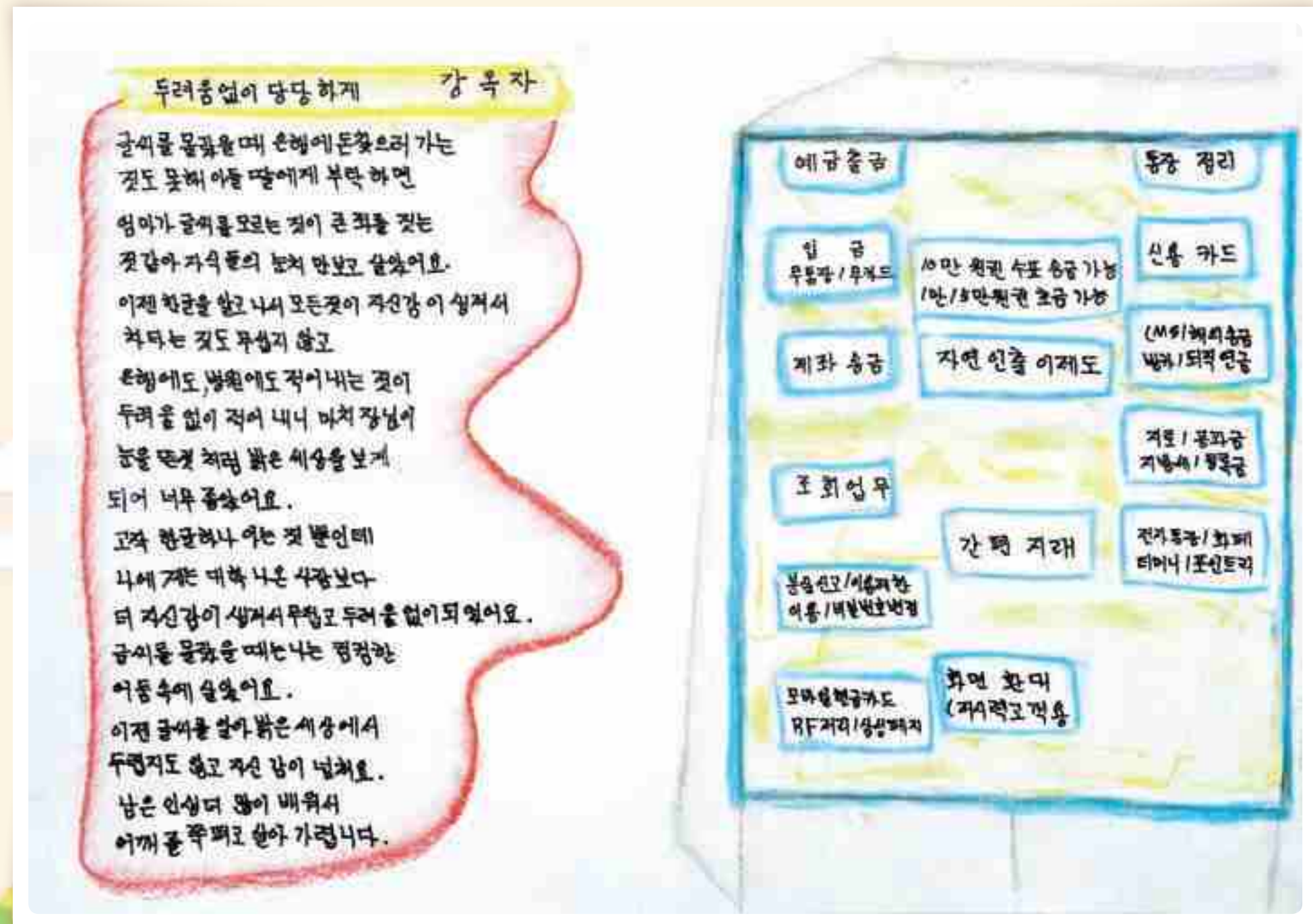
# 두려움없이 당당하게

강 옥 자 (73) / 서구연희노인문화센터



격려상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상

글씨를 몰랐을 때 은행에 돈찾으러 가는 것도 못 해  
아들 딸에게 부탁하면  
엄마가 글씨를 모르는 것이 큰 죄를 짓는 것 같아  
자식들의 눈치만 보고 살았어요  
이젠 한글을 알고나서 모든 것에 자신감이 생겨서  
차타는 것도 무섭지 않고  
은행에도, 병원에도 적어내는 것이  
두려움없이 적어내니 마치 장님이  
눈을 뜬 것처럼 밝은 세상을 보게 되어  
너무 좋았어요  
고작 한글 하나 아는 것 뿐인데  
나에게는 대학 나온 사람보다  
더 자신감이 생겨서 무섭고 두려움 없이 되었어요  
글씨를 몰랐을 때는 나는 컴컴한  
어둠 속에 살았어요  
이젠 글씨를 알아 밝은 세상에서  
두렵지도 않고 자신감이 넘쳐요  
남은 인생 더 많이 배워서  
어깨를 쭉 펴고 살아 가렵니다







격려상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상

# 내 고향

함 옥 엽 (73) / 인천광역시교육청북구도서관

글자에  
담은  
희망의  
여정

2021. 9.

대한민국 문해의 달

2021년 인천광역시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전남 진도읍 포산리가 내 고향

고향가서

놀이 없어 고생하는

동생네 대파 심어주고

벼 못자리도 해주고

바닷가에서 바지락 캐서

국도 끓여 맛있게 먹었다

내 동생 차 타고

고향 구경 많이 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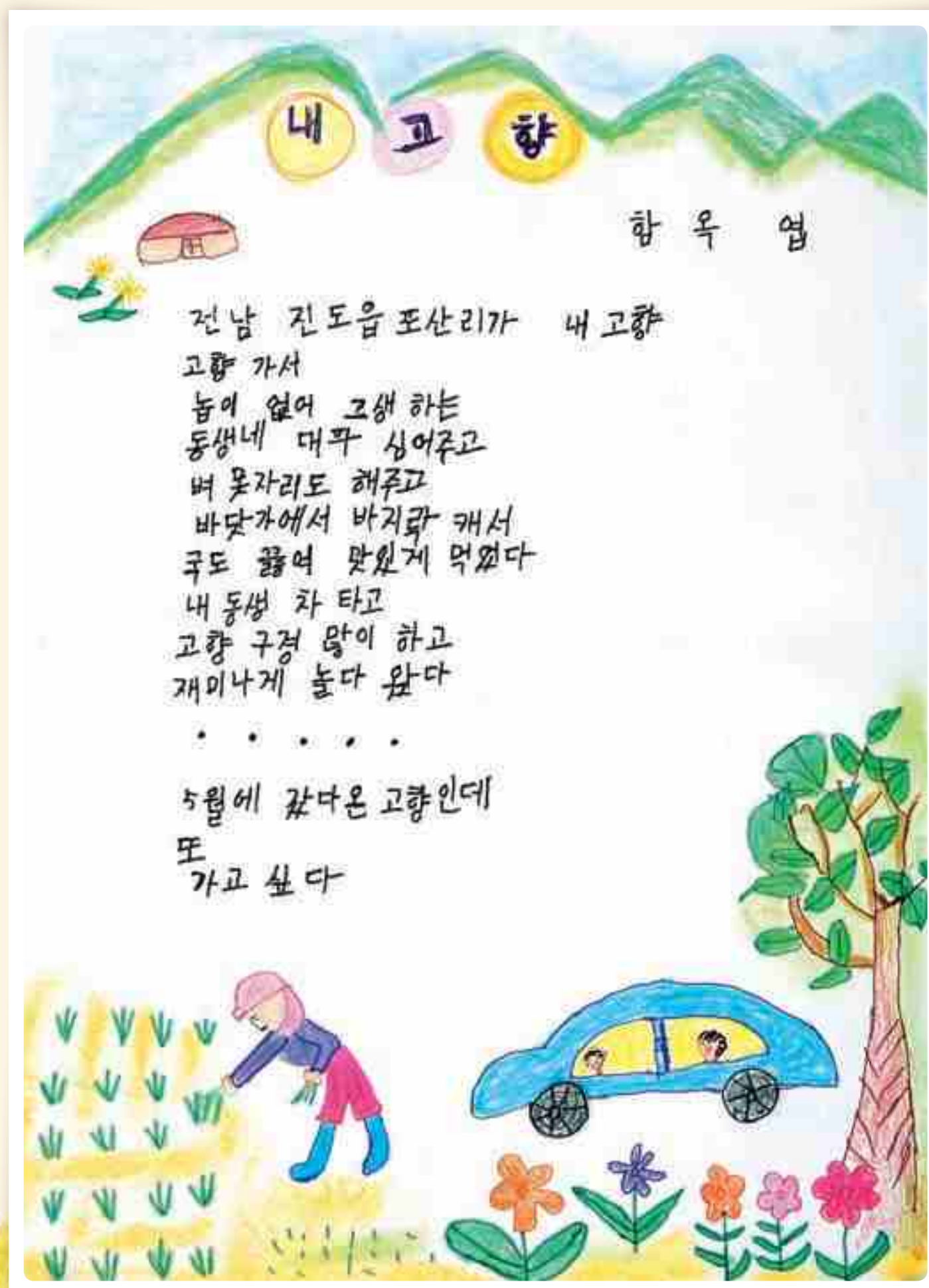
재미나게 놀다 왔다

.....

5월에 갔다온 고향인데

또

가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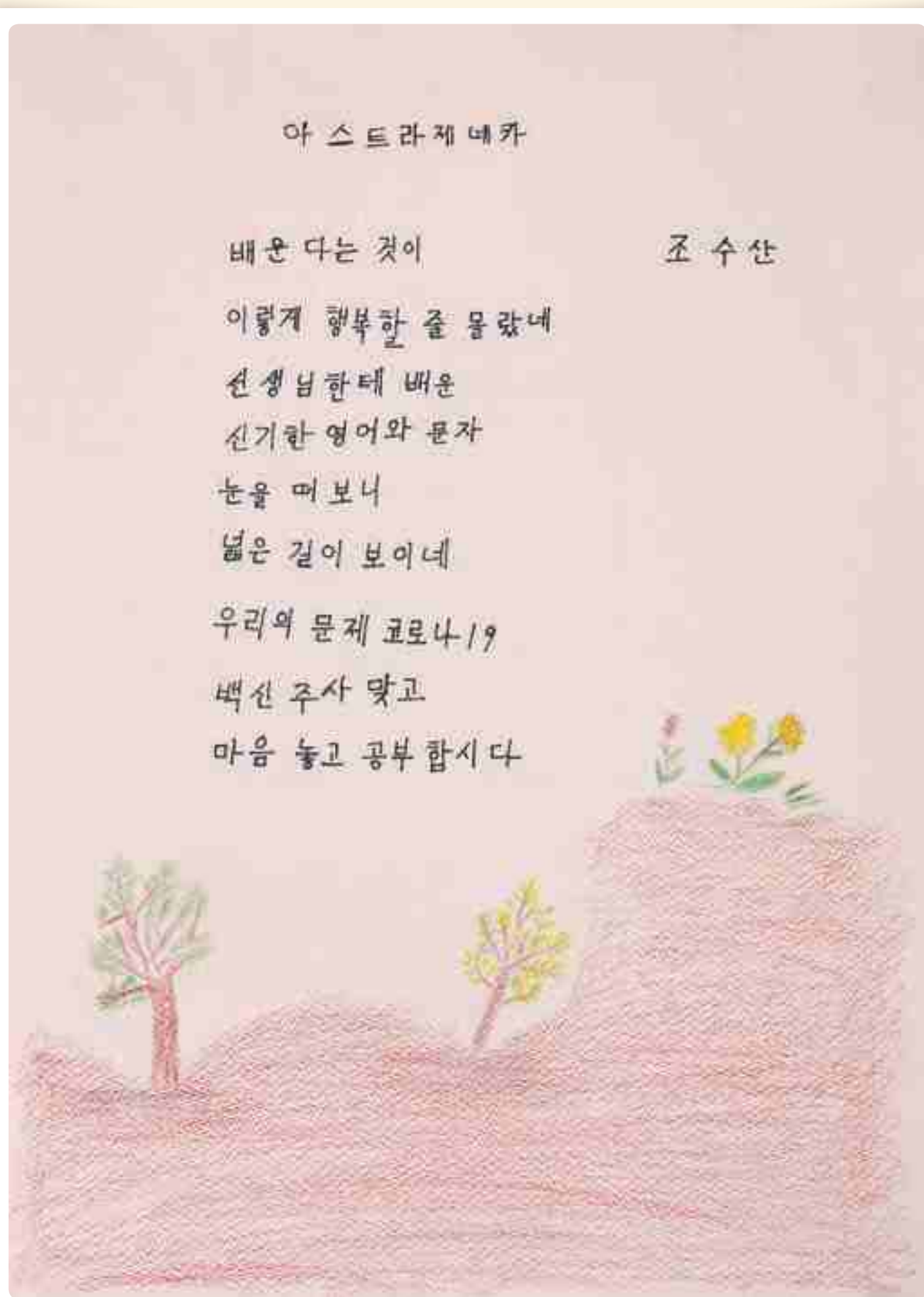
격려상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상

글자에  
담은  
희망의  
여정

2021. 9.

대한민국 문해의 달

2021년 인천광역시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 아스트라제네카

조수산 (73) / 남동구평생학습관

배운다는 것이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네  
선생님한테 배운  
신기한 영어와 문자  
눈을 떠 보니  
넓은 길이 보이네  
우리의 문제 코로나19  
백신 주사 맞고  
마음 놓고 공부합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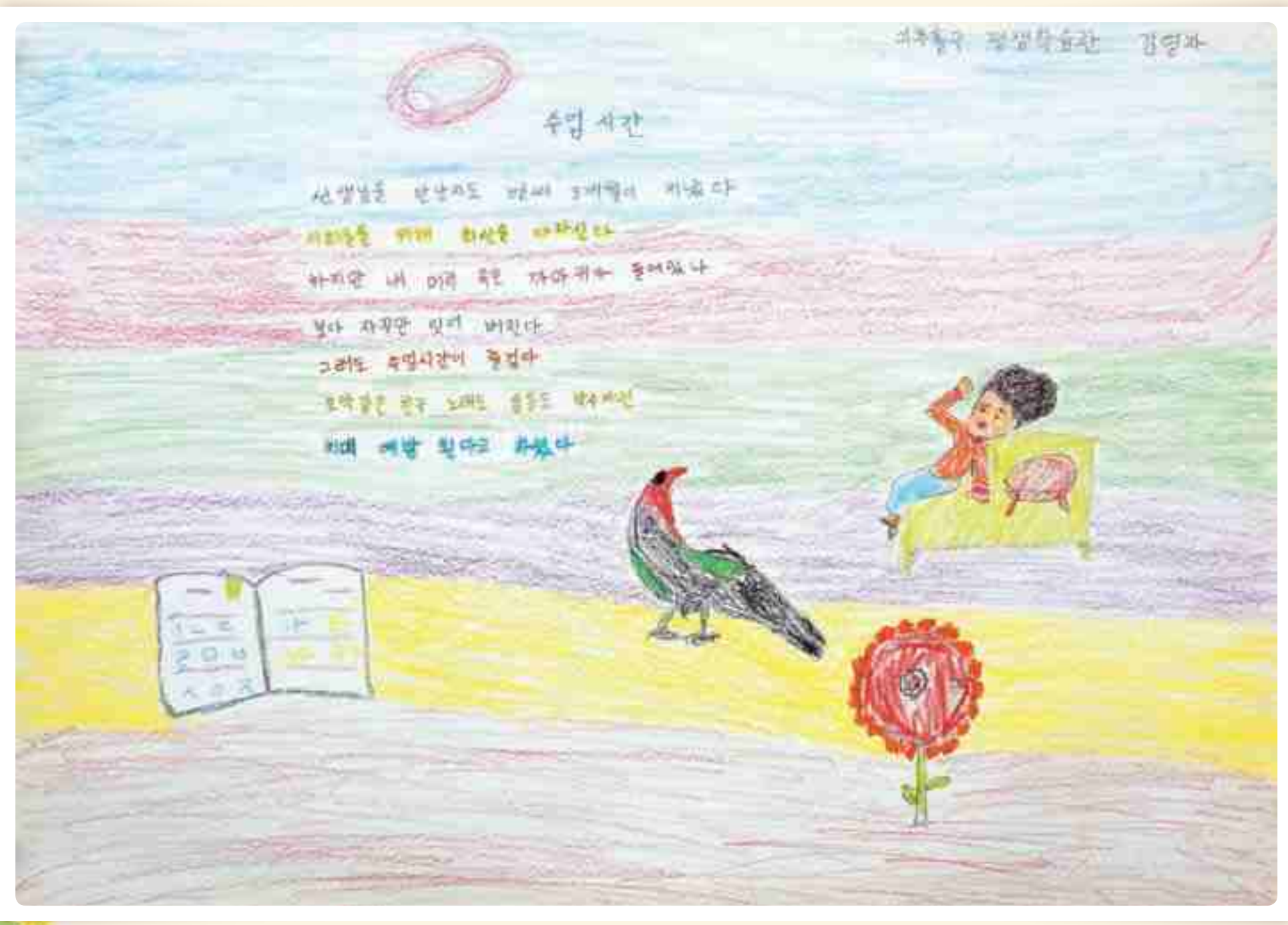


격려상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상

## 수업시간

김 영 자 (60) / 미추홀구평생학습관

선생님을 만난지도 벌써 3개월이 지났다  
저희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신다  
하지만 내 머릿속은 까마귀가 들어있나  
보다 자꾸만 잊어버린다  
그래도 수업시간이 즐겁다  
보약같은 친구 노래도 율동도 박수치면  
치매 예방된다고 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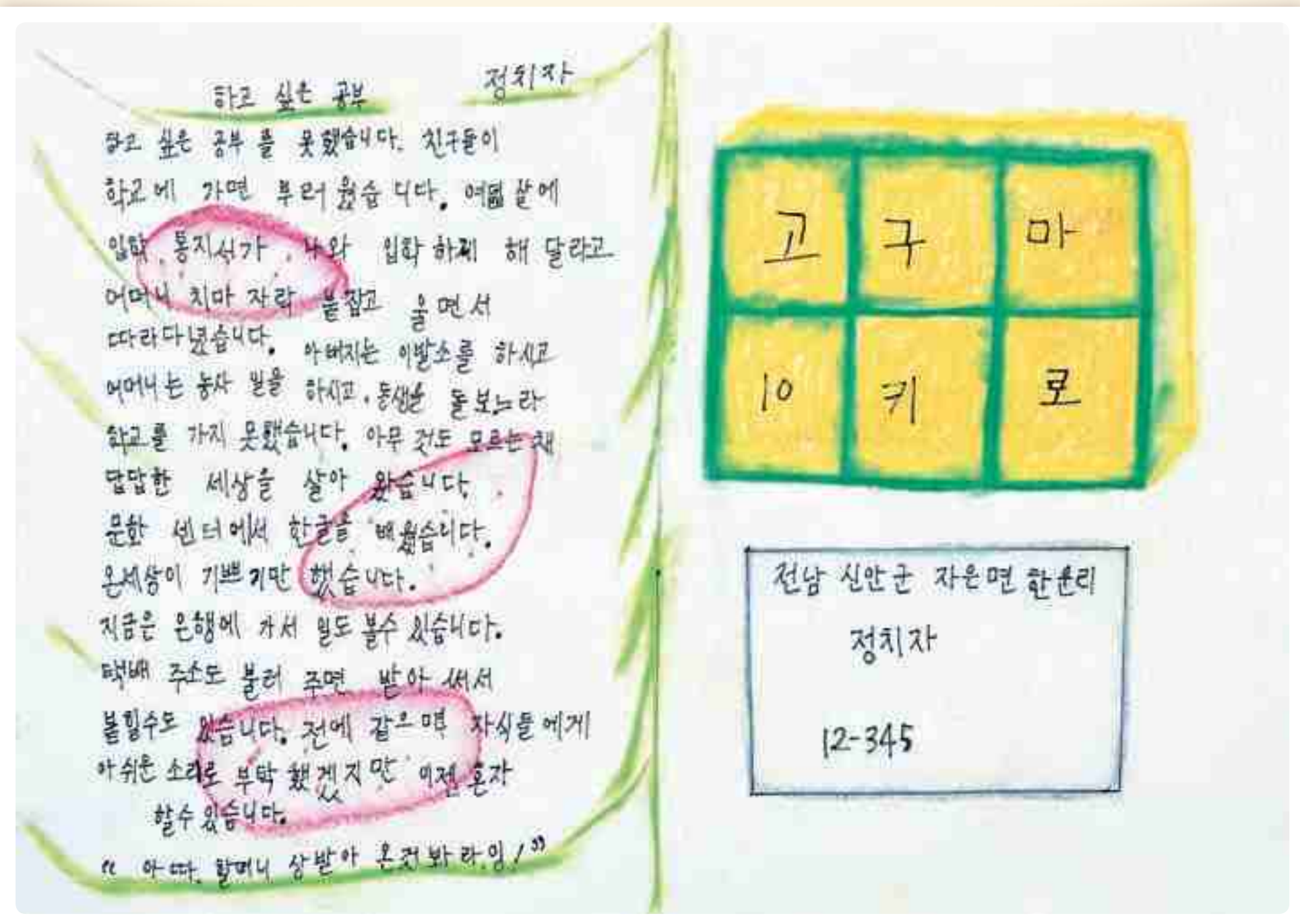




격려상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상

# 하고 싶은 공부

정 치 자 (72) / 서구연희노인문화센터



하고 싶은 공부를 못했습니다  
 친구들이 학교에 가면 부러웠습니다  
 여덟살에 입학통지서가 나와 입학하게 해 달라고  
 어머니 치맛자락 붙잡고 울면서 따라다녔습니다  
 아버지는 이발소를 하시고  
 어머니는 농사일을 하시고, 동생을 돌보느라  
 학교를 가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채  
 답답한 세상을 살아 왔습니다  
 문화센터에서 한글을 배웠습니다  
 온 세상이 기쁘기만 했습니다  
 지금은 은행에 가서 일도 볼 수 있습니다  
 택배 주소도 불러주면 받아써서  
 불릴수도 있습니다 전에 같으면 자식들에게  
 아쉬운 소리로 부탁했겠지만  
 이젠 혼자 할 수 있습니다  
 “아따, 할머니 상 받아 온 것 봐라잉!”





격려상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상

# 코로나와 함께 졸업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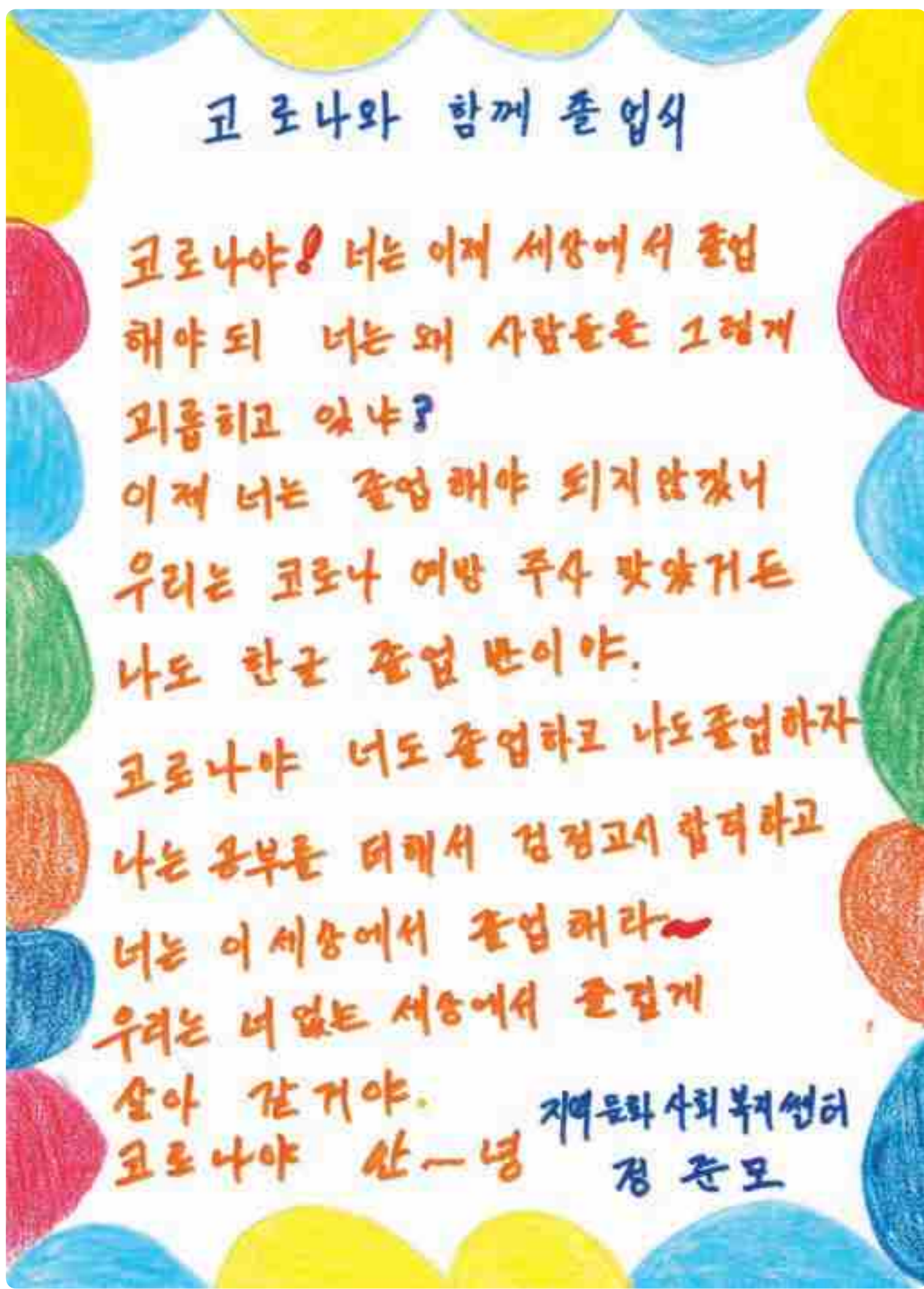
정준모 (80) / 지역문화사회복지센터

글자에  
담은  
희망의  
여정

2021. 9.

대한민국 문해의 달

2021년 인천광역시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코로나야! 너는 이제 세상에서 졸업해야 돼

너는 왜 사람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있냐?

이제 너는 졸업해야 되지 않겠니

우리는 코로나 예방주사 맞았거든

나도 한글 졸업반이야

코로나야 너도 졸업하고 나도 졸업하자

나는 공부를 더해서 검정고시 합격하고

너는 이 세상에서 졸업해라~

우리는 너 없는 세상에서 즐겁게

살아갈거야

코로나야 안녕~





격려상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상

글자에  
담은  
희망의  
여정

2021. 9.

대한민국 문해의 달

2021년 인천광역시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일 년 나 완순  
75세에 복지관을 가게 되었습니다  
일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나는 복지관 다니  
는게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요즘에는  
선생님이 수학을 가르쳐줍니다 수학 숫자  
모르는 저를 가르쳐 주셔서 얼마나 즐겁게  
사는지 모릅니다 재미있어요 복지관 분들과  
함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일 년

나 완순 (79) / 인천삼산종합사회복지관

75세에 복지관을 가게 되었습니다

일 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나는 복지관 다니는게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요즘에는 선생님이 수학을 가르쳐 줍니다

수학 숫자 모르는 저를 가르쳐 주셔서

얼마나 즐겁게 사는지 모릅니다

재미있어요 복지관분들과 함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격려상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상

# 사랑하는 아들

권성자 (68) / 만수종합사회복지관

글자에  
담은  
희망의  
여정

2021. 9.

대한민국 문해의 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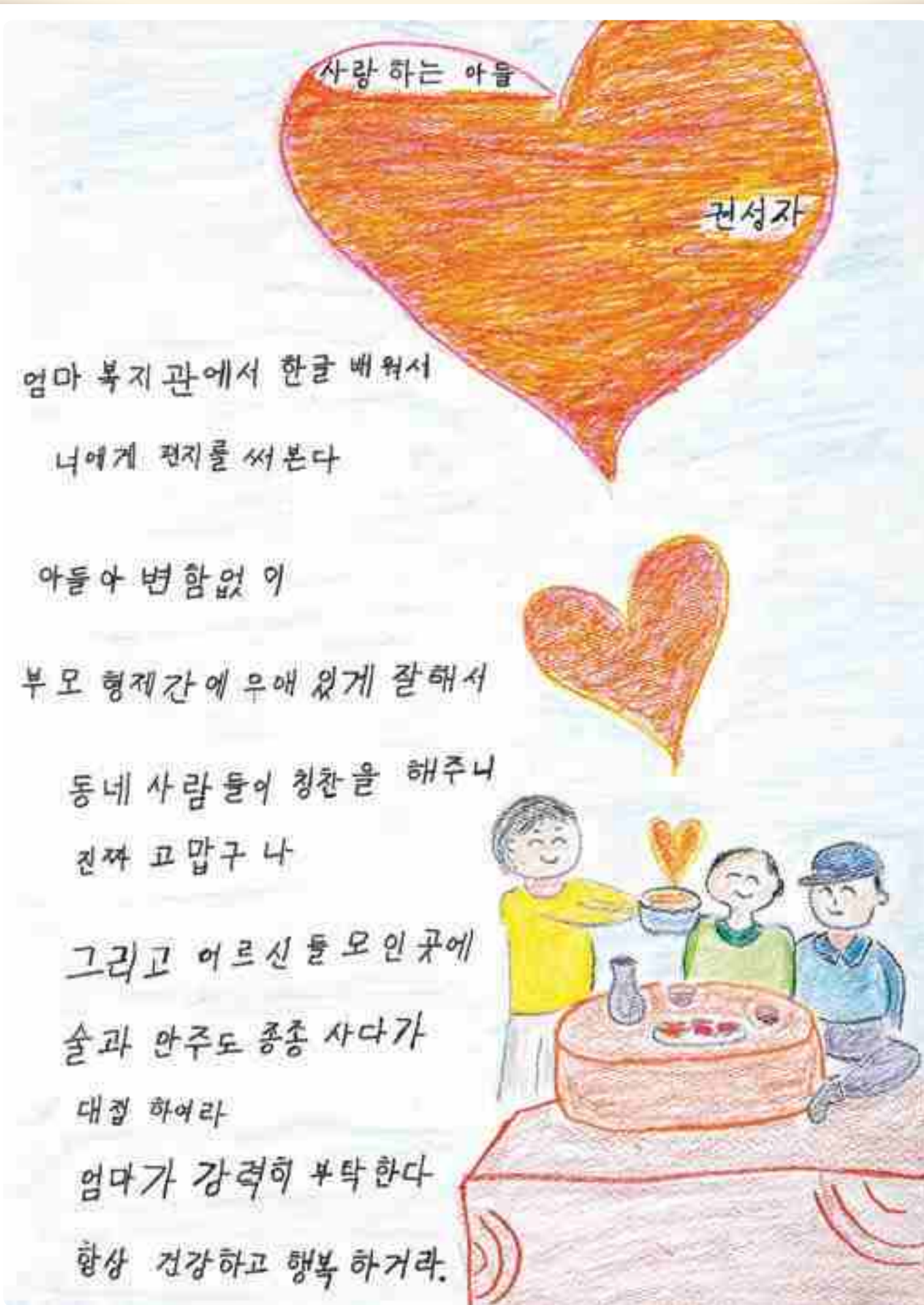
2021년 인천광역시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엄마 복지관에서 한글 배워서  
너에게 편지를 써 본다

아들아 변함없이  
부모 형제간에 우애있게 잘해서  
동네 사람들이 칭찬을 해주니  
진짜 고맙구나

그리고 어르신들 모인 곳에  
술과 안주도 종종 사다가  
대접하여라

엄마가 강력히 부탁한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거라







격려상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상

# 하소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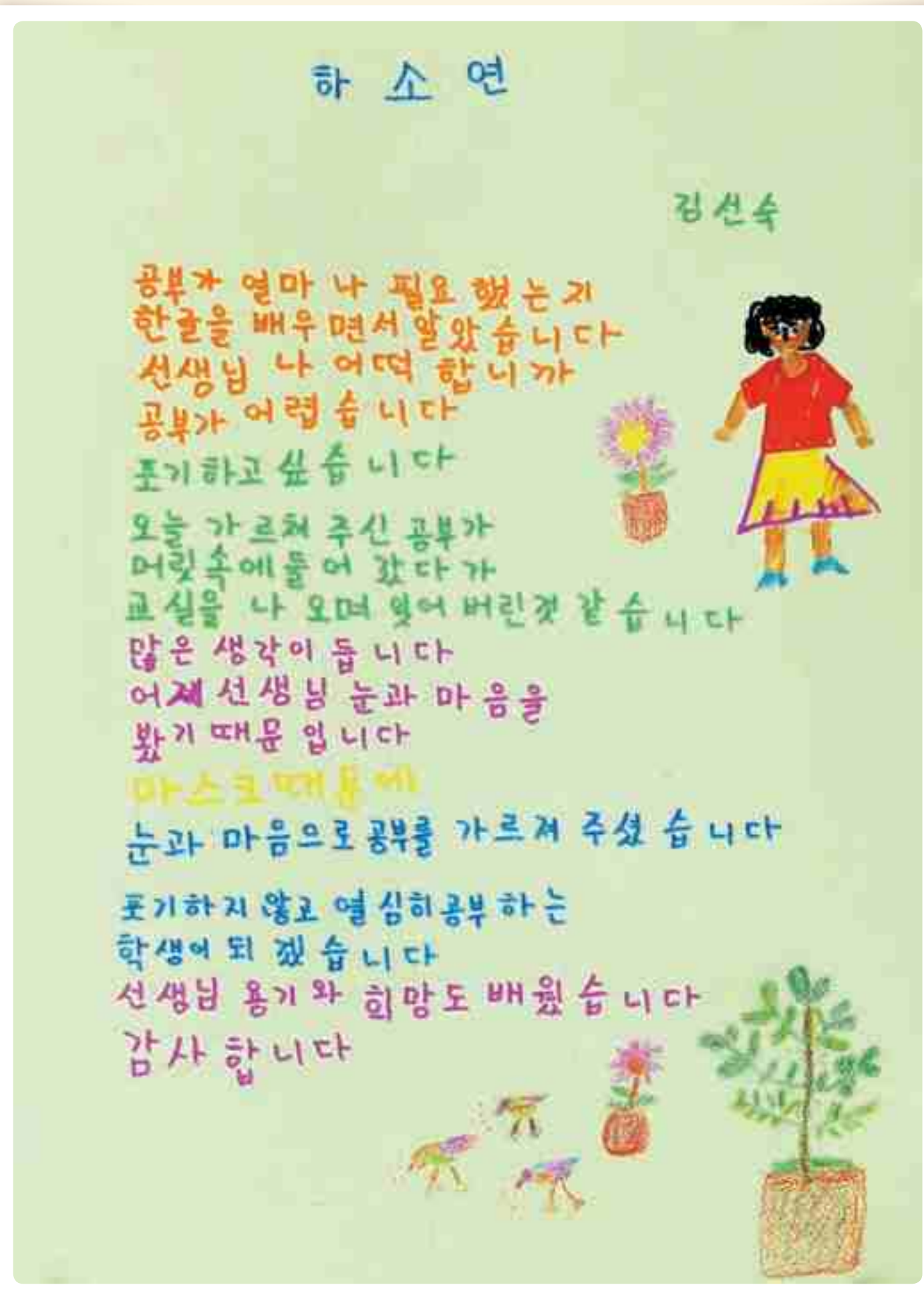
김 선 숙 (77) / 남동구평생학습관

글자에  
담은  
희망의  
여정

2021. 9.

대한민국 문해의 달

2021년 인천광역시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공부가 얼마나 필요했는지  
한글을 배우면서 알았습니다  
선생님 나 어떡합니까  
공부가 어렵습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가르쳐 주신 공부가  
머릿속에 들어 갔다가  
교실을 나오며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많은 생각이 듭니다  
어제 선생님 눈과 마음을  
봤기 때문입니다

마스크 때문에  
눈과 마음으로 공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 되겠습니다

선생님 용기와 희망도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격려상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상

# 아! 테스트형

석금태 (71) /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나이들어 공부하니

너무 힘이 드네

한글이 왜 그리 어려워

받아쓰기는 왜 이리 더 힘들어

그래도 재미나네

ㄱ ㄴ ㄷ ㄹ

A B C D

뭐가 더 어려울까요?

아! 테스트형

이 마음 알랑가 몰라!!

아! 테스트형

석금태

나이들어 공부하니

너무 힘이 드네.

한글이 왜 그리 어려워

받아쓰기는 왜 이리 더 힘들어

그래도 재미나네

ㄱ ㄴ ㄷ ㄹ

A B C D

뭐가 더 어려울까요?

아! 테스트형

이 마음 알랑가 몰라 !!

ㄱ ㄴ ㄷ ㄹ

소망의  
나무

받아쓰기  
1. 바다쓰기  
2. 역쓰기

A B C D

글자에  
담은  
희망의  
여정

2021. 9.

대한민국 문해의 달

2021년 인천광역시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격려상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상

## 복지관 관장님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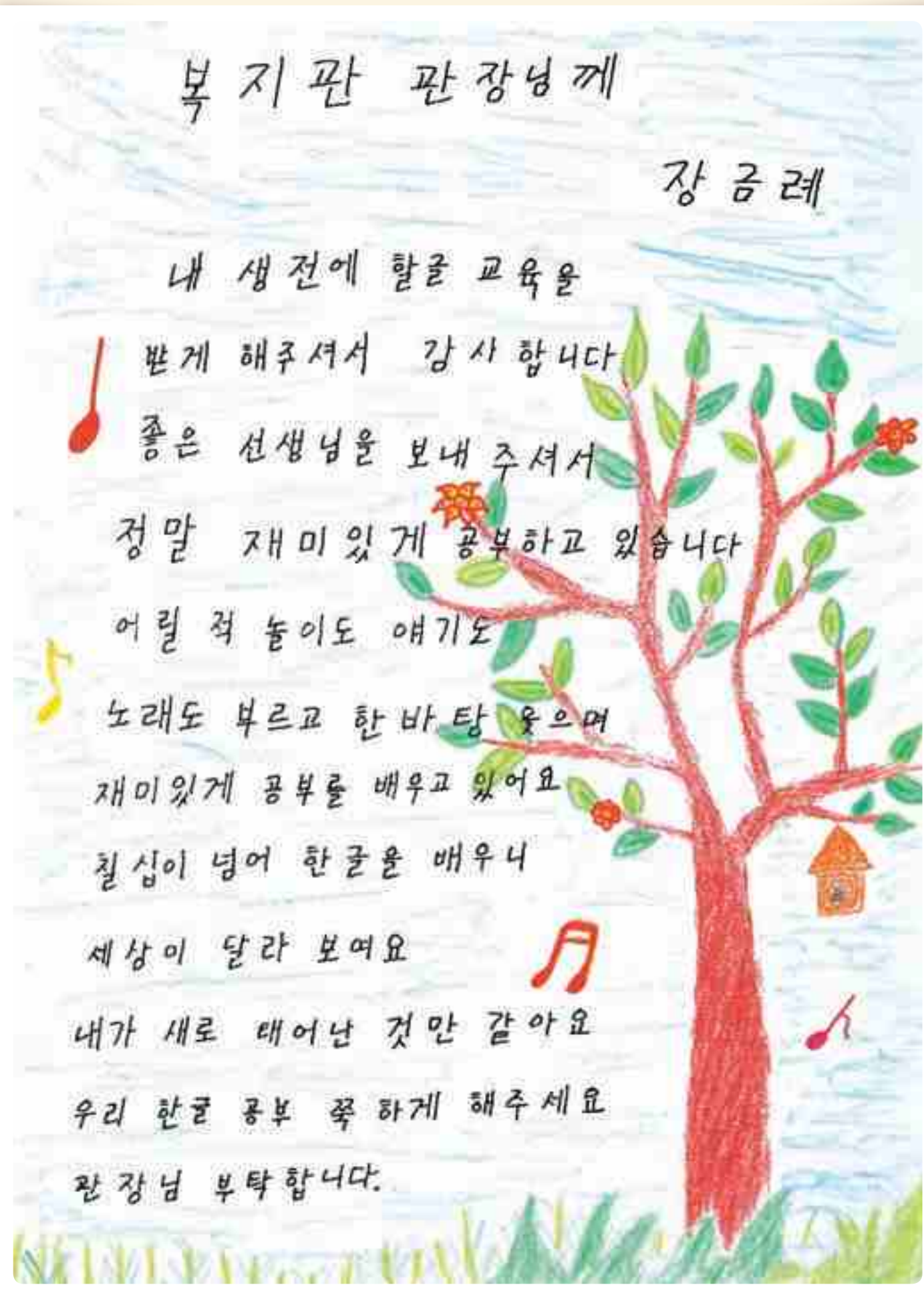
장 금 례 (72) / 만수종합사회복지관

글자에  
담은  
희망의  
여정

2021. 9.

대한민국 문해의 달

2021년 인천광역시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내 생전에 한글 교육을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선생님을 보내주셔서  
정말 재미있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릴 적 놀이도 얘기도  
노래도 부르고 한바탕 웃으며  
재미있게 공부를 배우고 있어요  
칠십이 넘어 한글을 배우니  
세상이 달라 보여요  
내가 새로 태어난 것만 같아요  
우리 한글 공부 쪽하게 해 주세요  
관장님 부탁드립니다



2021년 인천광역시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글자에  
담은  
희망의  
여정

# 짧은 글 쓰기





격려상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상

글자에  
담은  
희망의  
여정

2021. 9.

대한민국 문해의 달

2021년 인천광역시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 나의 보물지도

김 정 자 (84) / 인천광역시교육청계양도서관

글은 살아온 내 기억들을  
마음껏 담아내는  
소중한 보물 지도

2021년 전국 및 인천광역시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짧은글쓰기」 부문 수상작입니다.





격려상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상

글자에  
담은  
희망의  
여정

2021. 9.

대한민국 문해의 달

2021년 인천광역시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 함께 가자 친구야

최 상 락 (63) / 학력인정남인천고등학교

친구야.

그동안 이루어 왔던 배움의 결실을 풀어 나게.

우리의 여정이 종착지에 닿은 뚝방에

오랜 세월의 아픔을 보상받을듯 잊지 않았는가.

지금처럼 서로 응원하여, 격려하여. 가꾸어야.

우리가 할수 있다.

함께 가자 친구야.

2021년 전국 및 인천광역시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짧은글쓰기」 부문 수상작입니다.





격려상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상

글자에  
담은  
희망의  
여정

2021. 9.

대한민국 문해의 달

2021년 인천광역시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 꼭 해낼 거예요

권 말 분 (69) / 청학노인복지관

꼭 해낼 거예요  
이제는 읽을 수 있어요  
어렵기만 하더니  
한 자 한 자 환하게  
글씨가 보여요  
아직은 서툴지만  
지금처럼  
뚜벅뚜벅

배워 나갈 거예요  
남보다  
느리고 더디지만  
꼭 해낼 거예요

2021년 전국 및 인천광역시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짧은글쓰기」 부문 수상작입니다.





격려상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상

글자에  
담은  
희망의  
여정

2021. 9.

대한민국 문해의 달

2021년 인천광역시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 생일 축하 해요

김진술 (79) / 인천광역시교육청평생학습관

생일 축하 해요  
사랑하는 노혜숙 님  
생일 축하 해요  
하늘 나라 에 시도 꼭먹고  
드세요

2021년 전국 및 인천광역시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짧은글쓰기」 부문 수상작입니다.





격려상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상

글자에  
담은  
희망의  
여정

2021. 9.

대한민국 문해의 달

2021년 인천광역시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 아름다운 만학도

김성분 (59) / 학력인정남인천고등학교

배움의 열정으로 가득한  
아름다운 얼굴들이  
남인천 중학교에 있습니다.  
세월의 낮빛은 달라도  
배움의 열정은 하나입니다.  
배움의 만학도보다  
아름다운 얼굴이 또 있었어요.

2021년 전국 및 인천광역시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짧은글쓰기」 부문 수상작입니다.





격려상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상

글자에  
담은  
희망의  
여정

2021.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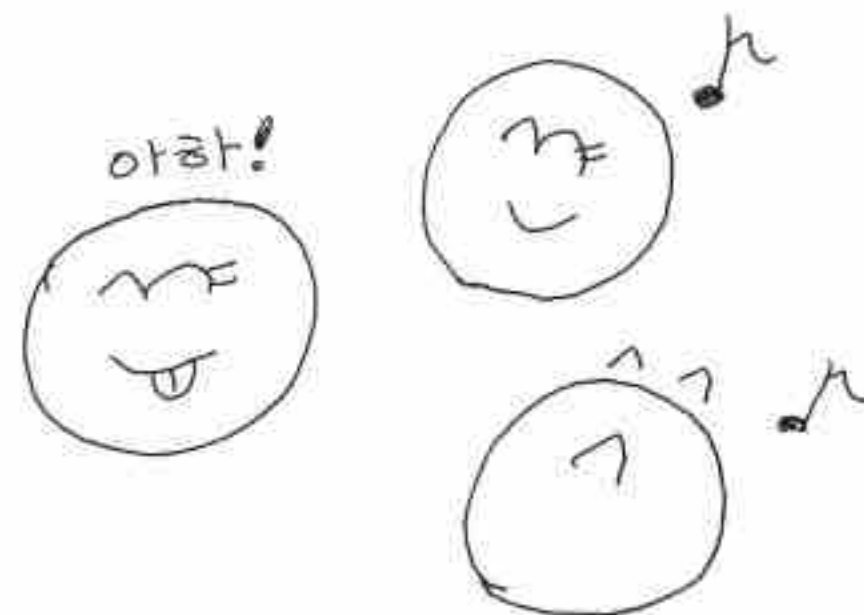
대한민국 문해의 달

2021년 인천광역시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일상의 경험

차 현 주 (57) / 학력인정남인천고등학교

친구들과 함께 책 속에서  
문제와 답을 찾을 때  
누가 먼저 찾나  
보물 찾기처럼  
마음이 들뜨고  
먼저 찾을 때 야호!  
하고 밑줄 짝 긋는다



2021년 전국 및 인천광역시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짧은글쓰기」 부문 수상작입니다.





격려상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상

글자에  
담은  
희망의  
여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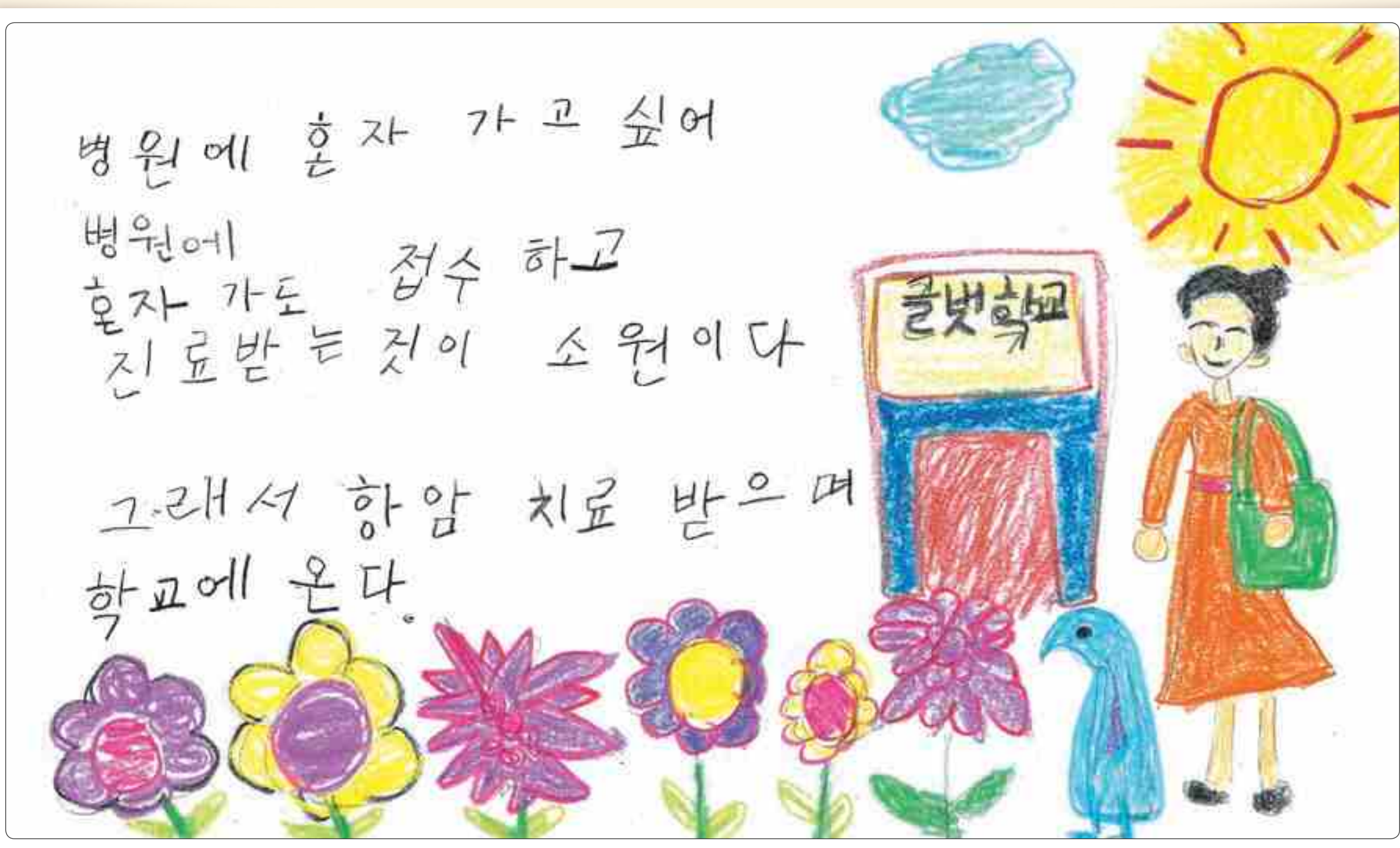
2021. 9.

대한민국 문해의 달

2021년 인천광역시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 병원에 혼자 가고 싶어

이복님 (65) / 남동구평생학습관



2021년 전국 및 인천광역시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짧은글쓰기」 부문 수상작입니다.





격려상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상

글자에  
담은  
희망의  
여정

2021. 9.

대한민국 문해의 달

2021년 인천광역시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이름

윤 천 순 (70) / G(글로벌)문화평생교육원

이름

까막눈 젊은 시절  
내 이름 석자  
읽지도 쓰지도 못했네

이름 석자 오르는 인생  
너무도 서러웠네

환갑 넘어 한글 배워  
이름 찾았네

2021년 전국 및 인천광역시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짧은글쓰기」 부문 수상작입니다.





격려상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상

글자에  
담은  
희망의  
여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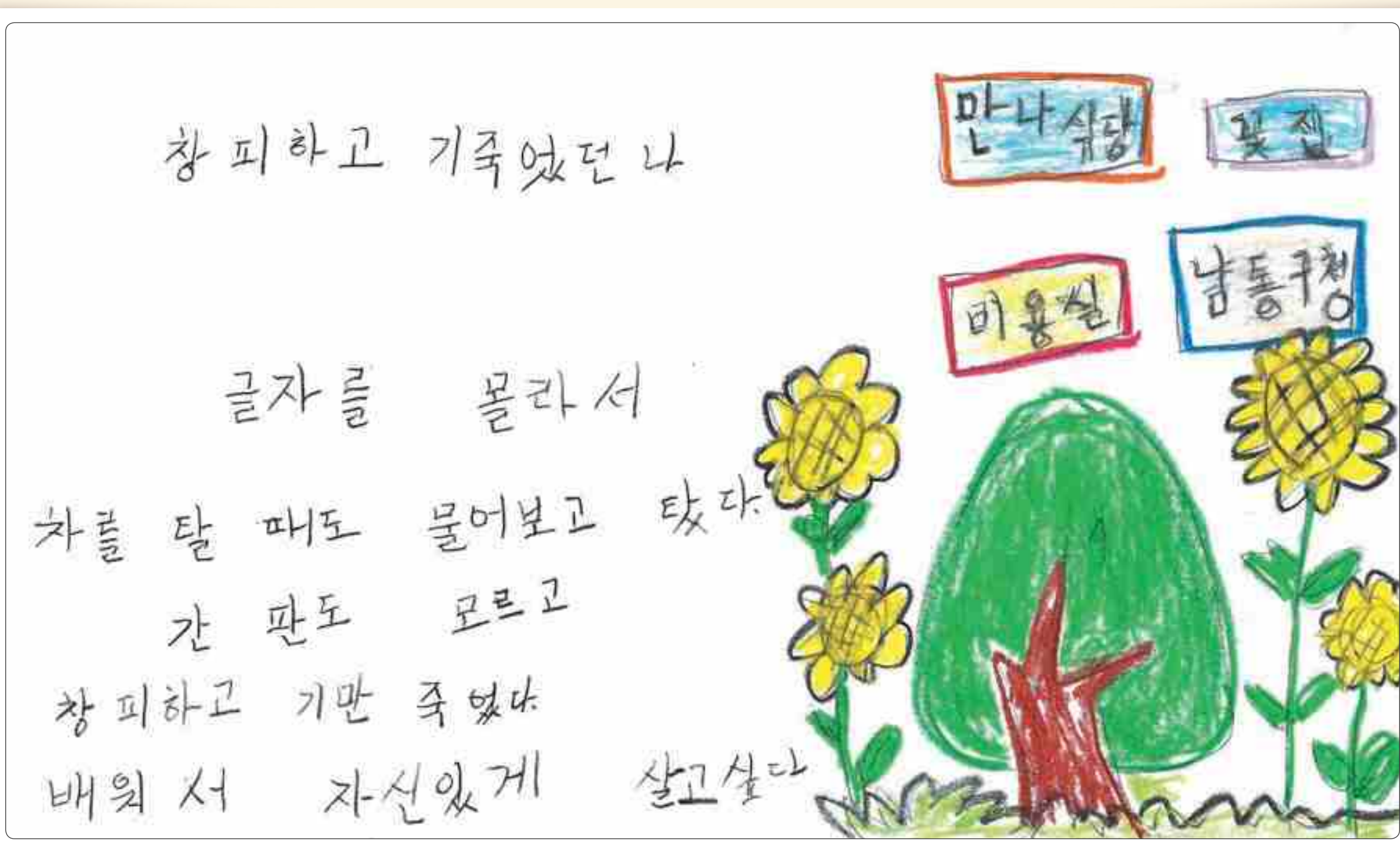
2021. 9.

대한민국 문해의 달

2021년 인천광역시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 창피하고 기죽었던 나

오 선 철 (59) / 남동구평생학습관



2021년 전국 및 인천광역시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짧은글쓰기」 부문 수상작입니다.





격려상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상

글자에  
담은  
희망의  
여정

2021. 9.

대한민국 문해의 달

2021년 인천광역시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 배움의 행복

장 미 (38) / 학력인정남인천고등학교

인간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은  
죽을 때까지 배울 수 있는 능력을 타고난 것.  
이 나이에도 가장 순수해질 수 있는 시간이  
배움의 시간이다.

2021년 전국 및 인천광역시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짧은글쓰기」 부문 수상작입니다.





격려상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상

글자에  
담은  
희망의  
여정

2021. 9.

대한민국 문해의 달

2021년 인천광역시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 배움의 길

홍 상 순 (77) / 갈산종합사회복지관

### 배움의 길

문해공부 배움의 길을 가다보니 즐거움이 넘치네.

삶이 허락 한다면 계속 배우며

정치학을 전공하고 싶네요.

2021년 전국 및 인천광역시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짧은글쓰기」 부문 수상작입니다.





격려상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상

글자에  
담은  
희망의  
여정

2021. 9.

대한민국 문해의 달

2021년 인천광역시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 도서관 가는 날

김 정 임 (64) / 인천광역시교육청북구도서관

도 서 관 가 는 날

도서관 가는 날은 설레임으로 가득

마음은 두근 두근

글자도 배우고 칭찬도 받고

신이 나는 날

2021년 전국 및 인천광역시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짧은글쓰기」 부문 수상작입니다.





격려상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상

글자에  
담은  
희망의  
여정

2021. 9.

대한민국 문해의 달

2021년 인천광역시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 많이 늦었지만

임 동 월 (80) / 인천광역시교육청평생학습관

많이 늦었지만

많이 늦었지만 열심히 배워서 어디서든  
내가 읽어야 하고 써야 할 때가 있으면  
잘 쓸수 있을 때 까지 배우고 싶다

2021년 전국 및 인천광역시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짧은글쓰기」 부문 수상작입니다.





격려상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상

글자에  
담은  
희망의  
여정

2021. 9.

대한민국 문해의 달

2021년 인천광역시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 한글배움

박 기 점 (81) / 미추홀노인복지관

한글 배움  
한자 한자 알다 보니  
시도 짓고 동화도 읽고  
나 자신을 알게 되어 행복하다

2021년 전국 및 인천광역시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짧은글쓰기」 부문 수상작입니다.





격려상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상

글자에  
담은  
희망의  
여정

2021. 9.

대한민국 문해의 달

2021년 인천광역시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 한글공부

손 정 애 (78) / 계양구평생학습관

한 한순간도 잊지 않았어  
글 글공부 열심히 해야겠다  
공 공자 말씀 머릿속에 떠올리며  
부 부지런히 노력하여 한글 박사가  
되야 겠다

2021년 전국 및 인천광역시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짧은글쓰기」 부문 수상작입니다.





격려상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상

글자에  
담은  
희망의  
여정

2021. 9.

대한민국 문해의 달

2021년 인천광역시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 즐거운 마음

함복레 (75) / 미추홀노인복지관

즐거운 마음  
흐르는 세월 훈훈한 마음으로...  
인연 맺은 동료들과 한 마음 되어  
공부하러 가는 시간  
정말 즐거워요.

2021년 전국 및 인천광역시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짧은글쓰기」 부문 수상작입니다.





격려상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상

글자에  
담은  
희망의  
여정

2021. 9.

대한민국 문해의 달

2021년 인천광역시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아들아

전 재 연 (70) / 인천광역시교육청평생학습관

아들아

공부도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공부 해서 편지 써주께

2021년 전국 및 인천광역시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짧은글쓰기」 부문 수상작입니다.



2021년 인천광역시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글자에  
담은  
희망의  
여정

# 환 경





환경특별상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상

글자에  
담은  
희망의  
여정

2021. 9.

대한민국 문해의 달

2021년 인천광역시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 물티슈 대신 손걸레

김 순 정 (67) / 남동구평생학습관

환경의 날 수업하며 "나 하나 쯤이야"가 아니라  
지금 바로 "나부터"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자 했다.  
매일 학교 책상을 닦는 물티슈를 쓰지 않으면  
환경을 지킬 수 있겠다 생각해 친구들과 함께  
집에서부터 손걸레 들고 다니고 있다.





환경특별상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상

글자에  
담은  
희망의  
여정

2021. 9.

대한민국 문해의 달

2021년 인천광역시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 쓰레기 버리지 말자 길에! 고래는 얼마나 아플까!

강 분 연 (66) / 남동구평생학습관

길에 쓰레기를 버리면 비가와서 쓰레기가 떠내려가고  
바다로 가면 바다 쓰레기를 물고기들이 먹고  
죽을 수 있다고 배웠다.  
쓰레기를 길에 버리지 말아야 한다.





환경특별상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상

글자에  
담은  
희망의  
여정

2021. 9.

대한민국 문해의 달

2021년 인천광역시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 장바구니 들고다녀 쓰레기 산 줄이자

채 정 숙 (75) / 청학노인복지관

예전에는 장보러 갈 때 일회용 봉지를 사서 썼지만  
나부터 환경을 지켜보자는 마음으로  
장바구니를 사용하고 있다.  
환경을 위해 일회용 봉지 사용을 줄여야 한다.





환경특별상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상

글자에  
담은  
희망의  
여정

2021. 9.

대한민국 문해의 달

2021년 인천광역시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삼십분 걸었더니  
공기가 맑아졌어요

## 삼십분 걸었더니 공기가 맑아졌어요

김 순 이 (80) / 연수구노인복지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활동을 고민했는데  
가까운 거리를 걸어다니면  
배기가스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아  
자주 걸어다니고 있다.





격려상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상

글자에  
담은  
희망의  
여정

2021. 9.

대한민국 문해의 달

2021년 인천광역시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 수돗물을 받아봅시다

박 숙 철 (80) / 남동구평생학습관

물을 펄펄 쓰며 너무 많이 흘려 보내는게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고,  
물이 귀했던 옛날이 생각나서  
한 방울씩 밤새 받아서 사용하고 있다.





격려상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상

글자에  
담은  
희망의  
여정

2021. 9.

대한민국 문해의 달

2021년 인천광역시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자



##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자

신 옥 자 (75) / 남동구평생학습관

아버지가 딸이라고 공부를 안시켰고,  
남편에게 못배웠다고 서러움 당하며 살았는데  
백발이 되어 한글도 배우고 환경도 배우니  
숨통이 트이고 살 것 같다.  
우리 모두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





격려상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상

글자에  
담은  
희망의  
여정

2021. 9.

대한민국 문해의 달

2021년 인천광역시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 내가 오래 살 인천 내가 먼저 지키자

박막임 (79) / 인천광역시교육청평생학습관

환경보호가 시급한 요즘,  
환경을 지키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내가 사는 인천, 내가 살아가는 인천을 위해  
내가 먼저 환경보호를 시작하자.





격려상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상

글자에  
담은  
희망의  
여정

2021. 9.

대한민국 문해의 달

2021년 인천광역시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 분리수거 바른 실천 살기좋은 우리 인천

최 정 (48) / 인천광역시교육청평생학습관

환경보호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았는데  
일상에서 잘 할 수 있는 일을 찾다보니  
분리수거가 생각났다.  
환경보호를 위해 우리 모두 분리수거를  
잘 해야 한다.





격려상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상

글자에  
담은  
희망의  
여정

2021. 9.

대한민국 문해의 달

2021년 인천광역시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쓰레기 배출량도 줄여요!

류영수 (59) / 인천광역시교육청평생학습관

환경보호를 위해 일상에서 편히 쓰고 있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야 한다.

일회용품 쓰레기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환경을 위해 재사용이 가능한 그릇을 쓰는 등  
쓰레기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





격려상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상

글자에  
담은  
희망의  
여정

2021. 9.

대한민국 문해의 달

2021년 인천광역시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 산과 바다가 숨쉬는 환경특별시 인천!

신명자 (56) / 지역문화사회복지센터

산이 푸르고 물이 좋은 인천이 그림다.  
자연이 아프지 않도록 우리가 아프지 않도록  
산과 바다가 숨쉬는 인천을 만들어요.





격려상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상



## 인천 늘 푸른 환경특별시

정 해 호 (84) / 지역문화사회복지센터

유독가스를 배출하고 쓰레기가 많아져  
공기가 탁해 숨쉬기가 힘들다.  
환경을 위한 자세로 쓰레기를 줄이며  
늘푸른 인천을 만들어야 한다.





격려상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상

글자에  
담은  
희망의  
여정

2021. 9.

대한민국 문해의 달

2021년 인천광역시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 무심코 버린 쓰레기 손주들 힘들게 한다

정 하 수 (80) / 청학노인복지관

무심코 버린 쓰레기가 인천 곳곳에 넘쳐나고 있다.  
인천광역시의 미래를 함께 그려가고 지켜나갈  
손자 손녀들을 위해 환경을 지켜야 한다.